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 책임연구원 : 박숙경(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 공동연구원 : 김소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대리)
오세정(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강성모(민노씨네 · 운영자)

발 간 사 ■ ■ ■

21세기 글로벌 사회는 청소년의 삶의 공간을 지구촌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국가의 국민일 뿐 아니라 지구촌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기에 이에 필요한 글로벌 시티즌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습득해야 합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관심과 참여,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사회정의와 평등,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익힌 지구시민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청소년국제교류는 청소년의 활동의 한 영역으로 청소년정책 20년 역사와 함께 하여 왔으나 크게 정책적 외연을 확대하지 못해왔습니다. ‘글로벌’이 화두인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매우 필요로 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청소년 국제교류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교류활동의 성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본 연구는 Q 연구방법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국제교류활동 참여자들의 국제교류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국제교류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청소년기관·단체의 관계자, 관계 공무원 분들과 면접 및 질문지 조사에 응해준 국제교류 참여청소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내용과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함께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전문가 심층면접 및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하는 Q방법론을 통해 참여효과 인식 내용 분석과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후 도출된 인식유형을 2010년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1,6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226부를 SPSS 18.0을 활용 분석하여 일반적 분포와 인식유형별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상의 질적·양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제교류 사업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내용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참여자들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낯선 곳에서의 적응력과 용기 배양, 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긍정적 효과를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활동 참여 효과에 대한 인식 유형은 3가지 즉,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개인의 관심사를 발전시킬 수 있고, 새로운 소통의 기회로서 실용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2유형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고 인식한다. 제3유형은 다양한 삶의 방식의 경험을 통해 자기성찰과 새로운 진로 모색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단계로 국제교류활동 효과에 대한 인식유형별 일반적 분포와 기타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제2유형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5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1유형인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25.7%)’, 제3유형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19.9%)’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제1유형은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자, 해외체류 경험자, 사후활동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제 2유형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흥미로 인해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한 초기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3유형인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비교적 어려서부터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세 번째로 사업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참여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사전교육 진행, 사후활동 지원에 대한 만족도 이상 3개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참여자 관점에서의 우선 개선과제에 대한 분석결과 참여자들은 사후활동 지원, 프로그램 내용, 홍보 및 모집방법 개선을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제기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교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참여자 관점에서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를 이해하는 실증자료를 구축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이러한 후속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 인식 유형에 따른 특성별 요구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다양화와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를 심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참여기회 확대 및 제도적 장치, 운영측면의 인력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주제어 :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 인식유형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참여 청소년의 국제교류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유형과 사업별 분포 특성 조사를 통해 국제교류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 질적 및 양적 연구를 혼합하는 '병합 방법론(combined methodology)'을 하였음.
- 연구절차는 크게 국제교류활동 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유형을 규명하는 Q 조사단계와 효과인식유형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 단계로 이루어 짐.

3. 주요결과

1) 참여효과 인식유형 분석

- 참여자들의 인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세 개 유형이 발견되었음.
- 제1유형은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 제2유형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제3유형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로 명명하였음.

2) 참여효과 인식유형의 분포와 특성

- 제2유형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54.4%, 제1유형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 25.7%, 제3유형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 19.9% 순으로 나타났음.
- 제1유형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는 다른 그룹에 비해 영어 사용이 원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크게 많고, 해외체류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크게 많았음. 참여 후 달라진 점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꼽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제2유형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은 ‘원활한 소통 이상의 영어사용자’와 ‘해외체류경험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후활동 참여자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적었음. 제3유형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는 제1유형에 비해서 영어사용능력 우수자, 해외체류경험자, 사후활동참여자가 적었지만 제2유형에 비해서는 많았음.

3)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별 참여경험 및 참여효과

- 사업유형별 참여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청소년테마체험의 경우 초중고생 참여율이 높았으며 국제회의행사참가단, 청소년해외조사연수, 청소년해외봉사활동은 30% 내외였고, 한중청소년 특별교류, 국가간청소년교류는 국제청소년 광장은 적었음. 거주지를 볼 때 서울시와 광역시 거주자가 80%를 넘었음.
- 사업유형별로 볼 때 참여효과를 소통과 네트워크의 기회로 보는 1유형은 청소년해외테마체험에서 많았고 참여효과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 보는 2유형은 청소년해외조사연수와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에서 많았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로 보는 3유형은 해외봉사활동에서 많았음.

4) 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 참여자들은 ‘사후활동 지원’과 ‘홍보 및 모집방법’ 개선을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제기하고 있음.

4. 정책제언

- 국제교류 참여효과 인식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함. 즉 소통과 네트워크 기회로 삼는 청소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청소년, 새로운 진로 모색의 계기로 삼으려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 사후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사전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개인별 수준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목표와 진행이 필요함.
- 국제교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인력 및 예산확보가 필요함.
-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기획, 운영, 평가할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함.

목 차

I.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II. 이론적 배경	11
1. 청소년 국제교류 패러다임의 변화	11
2. 청소년 국제교류 유형	13
3.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23
III.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27
1. 연구방법	27
2.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유형 연구절차	30
3. 참여효과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와 특성 연구절차	35
IV. 연구결과	41
1. 참여효과 인식유형 분석	41
2.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 인식유형의 분포와 특성 분석	54
3. 국제교류사업 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 분석	64
4. 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분석	76
V. 결론 및 제언	83
1. 연구결과의 요약	83
2. 연구의 함의와 제언	85
3.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88
참고문헌	89

부 록	97
부록 1. 심층면접 동의서 및 질문지	97
부록 2. Q 모집단	100
부록 3. Q 분포도	103
부록 4. 설문지	106
부록 5. 2010 정부주도 국제교류사업 개선 의견	109
Abstract	119

표 목차

〈표 I-1〉 심층 면접 개요	5
〈표 I-2〉 Q조사 방법론 개요	6
〈표 I-3〉 양적 조사 방법론 개요	7
〈표 II-1〉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현황(2009.12.31)	15
〈표 II-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현황(2009.12.31기준)	15
〈표 II-3〉 한·중 특별 교류 현황(2009년 기준)	18
〈표 II-4〉 한·중·일 우호 만남 현황(2009년 기준)	18
〈표 II-5〉 청소년 해외체험 활동지원 프로그램 현황	19
〈표 II-6〉 2009년 해외테마체험 프로그램	20
〈표 II-7〉 2009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21
〈표 II-8〉 2009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22
〈표 II-9〉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	23
〈표 III-1〉 Q표본(N=41)	31
〈표 III-2〉 설문지 구성	37
〈표 III-3〉 국제교류사업별 표본수와 응답률	38
〈표 IV-1〉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41
〈표 IV-2〉 유형간 상관관계계수	42
〈표 IV-3〉 유형별 P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유형가중치	42
〈표 IV-4〉 합의항목의 Q 표본과 표본점수	44
〈표 IV-5〉 제1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 1.00 이상)	46
〈표 IV-6〉 제2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 (± 1.00 이상)	48
〈표 IV-7〉 제3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 (± 1.00 이상)	50
〈표 IV-8〉 유형별 판별력이 높은 Q 표본과 점수	52
〈표 IV-9〉 유형별 사정도구	53
〈표 IV-10〉 참여효과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	55

〈표 IV-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5
〈표 IV-12〉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56
〈표 IV-13〉 응답자의 국제교류활동 경험 특성	58
〈표 IV-14〉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국제교류 활동 경험	59
〈표 IV-15〉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참여횟수, 참여프로그램 수	61
〈표 IV-16〉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참여프로그램 유형	62
〈표 IV-17〉 응답자의 2010 정부 주도 국제교류사업 참여경험 특성	65
〈표 IV-18〉 사업유형별 참여경험	67
〈표 IV-19〉 2010 정부 주도 국제교류사업 만족도	69
〈표 IV-20〉 사업유형별 참여효과	70
〈표 IV-21〉 사업유형별 만족도	72
〈표 IV-22〉 국제교류사업 개선 과제	77
〈표 IV-23〉 국제교류사업 개선의견	78

그림 목차

【그림 Ⅲ-1】 연구의 총괄적 구조	28
【그림 Ⅲ-2】 Q 소팅 분포도(N=41)	34
【그림 Ⅲ-3】 양적 연구 분석 모형	35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고전적인 국경의 의미는 점차로 퇴색되고, 세계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른바 지역과 인종, 민족을 넘어 세계시민이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 지구촌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가치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국제교류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직접 개발하여 추진하는 한편,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과 60여년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최초 사례로 짧은 시간동안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¹⁾.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유일한 기록이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 급속한 발전과 확대가 이뤄진 상황에서 국내 청소년국제교류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념화,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도 깊은 평가와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최근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 예컨대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 주요한 참여효과이자 목적으로 제시된 온 글로벌 역량,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시티즌십의 개념을 구성하고, 척도로 개발하려는 연구들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오해섭외, 2008; 윤철경, 2008; 지은람·선광식, 2007). 이들 연구들은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평가하고 참여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청소년

1) 한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ODA(공적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다가 2009년 OECD의 개발위원회(DAC) 가입으로 원조 주는 나라가 되었다.

국제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주 고객인 만큼 그들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오해섭, 2011). 그러므로 청소년 관점에서의 평가와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 인식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참여자 관점에서 국제교류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국제교류사업 실적의 증감을 양적으로 비교하거나, 기존 척도를 활용하여 참여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참여자관점에서 효과를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은 사업 추진 주체의 의도와 함께 참여자의 특성이 반영되어 구성되는 역동적인 주제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제대로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참여자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국제교류의 정책목표는 사회변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글로벌 사회 진입기와 글로벌 사회 이행기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변화된 상황에서 국제교류사업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내용과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유형 분포와 인식유형별 참여자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국제교류사업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청소년국제교류사업 개선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참여자 관점에서 정부 주도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효과를 규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청소년의 인식유형 도출, 도출된 참여효과 인식유형 분포와 인식유형별 참여자 특성 규명, 정부 주도 국제교류사업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 규명, 참여자 관점에서 정부 주도 국제교류사업 개선과제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1)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문헌연구

문헌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실시했다. 첫째,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경험과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셋째,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2)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내용 연구

참여자 관점에서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 세 개 유형의 사업별 지도자 3인, 국제교류 참여자 6인, 학계전문가 1인 이상 총 10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심층면접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내용을 도출하였다.

표 I-1 심층 면접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조사대상	2010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자 6인 국제교류사업 운영기관 프로그램 운영자 3인 학계전문가 1인	10인
선정방법	국제교류사업 유형, 청소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조사내용	프로그램의 목표, 참여대상, 프로그램 내용, 실시방법, 운영여건, 참여자의 만족도 및 사전사후 글로벌 시티즌십 수준, 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문제점, 프로그램 발전방안 등	
조사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 구축 반구조화된 질문지 기법에 의한 심층면접 분석은 9명 녹음·녹취록 분석 / 1명 면접기록 분석	면접조사지
조사시기	2011. 5. 15~5. 25	
분석	개방적 코딩 기법에 따라 면접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진술문 추출	

3)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인식내용을 분류한 후, Q 방법론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은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가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표 I-2 Q조사 방법론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조사대상	2010년 국제교류사업 참여자 40인	40인
선정방법	국제교류사업 유형, 청소년 연령, 참여 국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조사내용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유형	
조사방법	Q 대표 진술문 구축 Q 조사도구 개발 P 샘플링(조사대상 선정 및 섭외) Q 사전조사 실시 및 조사도구 확정 Q 소팅 및 분석	Q 조사지 및 조사도구
조사시기	2011. 6. 15~6. 30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입력 및 QUANL 분석	

4) 참여효과 인식유형 분포와 특성 및 사업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 연구

도출된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와 인식유형별 관련 특성의 차이, 사업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국제교류사업 참여자 1,6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실시한 다음 수거된 설문지 237부 중 유효 설문지 226부를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I-3 양적 조사 방법론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조사대상	2010년 정부 주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자 1,612명	
조사내용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유형 분포와 특성	
조사방법	설문지 개발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조사 및 전화 조사 실시	설문지
조사시기	2011. 7. 25~9. 8	
자료 처리 및 분석	온라인조사 방식에 의해 코딩처리 자동 집계 SPSS 프로그램을 통한 빈도, 기술적 분석, 요인간 관련성 파악	

5) 참여자 관점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서베이 연구 과정에서 제안된 참여자 관점에서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만족도,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 및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발전 방안은 참여자의 관점에서 제안되었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6)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연구 설계와 추진 과정의 적절성, 분석 결과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위해 현장 전문가 2인, 학계 전문가 1인을 자문으로 섭외, 두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 등을 통해 그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국제교류 패러다임의 변화
2. 청소년 국제교류 유형
3.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국제교류 패러다임의 변화

『청소년기본법』은 제3조 제3호²⁾에서 ‘교류활동’을 ‘수련활동’, ‘문화활동’과 함께 3대 청소년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관련법과 정책에 의거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강조되는 분야가 다른데, 현재는 다문화와 글로벌화와 관련된 청소년활동의 하나로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정부 및 지자체, 청소년 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테마와 방법으로 활성화되어 왔다. 일례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의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와 국제교류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해외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및 문화간 교류 확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추진’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이면에는 기존 청소년국제교류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나라의 유적지 관광이나 친선활동, 행사참여 위주로 진행되어 진정한 가치와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이 깔려있다.

이렇듯 시대적 상황의 빠른 변화 속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른 청소년 국제교류는 ‘양적 성장과 내용 다변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화, 일방적 교류가 아닌 대등한 주체로서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려, 청소년의 욕구 및 참여 보장, 사업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체계화’ 이상 다섯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국제교류의 최근 패러다임을 살펴보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국제교류 평가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자. 청소년국제교류의 개념화는 ‘교류

2) 청소년기본법 제3조,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주체, 교류 목적, 교류 유형, 무엇을 교류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최근 패러다임의 주요 흐름은 교류 목적과 주체, 내용과 형식을 보다 광의로 개념화하고, 일방적 활동을 넘어서 '관계'에 주목하며,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연대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개념화의 가장 큰 흐름은 초기 '청소년의 직접 접촉'을 강조하던 협의의 개념화로부터 주체, 목적, 내용 및 형식 등을 다양하게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Yoneo Ishii(2000)는 '국제교류활동이 일본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인적자원개발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개념의 영역과 활동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국제교류 개념은 크게 협의와 광의로 나뉜다. 김경준(1995)은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청소년 국제교류를 '교류주체와 교류범위'를 기준으로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협의의 개념화는 '청소년 집단이 외국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광의의 개념화는 '청소년의 직접 접촉이 없어도 청소년들의 지적,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변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청소년 개인, 청소년 대표 또는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단체나 사회단체 등 청소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외국과의 인적, 물적, 문화적, 사상적인 교류활동'을 포괄한다.

청소년국제교류의 범위가 확장되고 점차 광의로 개념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개념화의 변화에서 주목할 내용은 상호성 등의 가치와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교류(交流)'는 어원적으로 볼 때 한자 뜻에 따르면 '물이 서로 섞이어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사귀거나 바꾸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어권에서 교류에 해당하는 용어는 'interchange' 또는 'exchange'이다. 이 역시 '상호', '~ 사이에'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교류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교류는 '서로 주고 받는 상호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Werner Müller(1987)는 국제교류의 개념에 대해 '일방이 아닌 쌍방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류를 '서로가 상대방에게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주어야만 하는 즉, 서로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하며, 청소년 국제교류를 '청소년 국제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청소년들이 외국을 방문하여 만나게 되는 교육적 목적으로 계획된 행사들이나 청소년들의 계획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과 관계들'로 정의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지구촌 사회의 '간문화적 이해를 통한 평화적 · 공동체적 삶의 창조', '지구촌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하여 공동체나

지역사회 공동체 등의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의식과 행위를 배우고 익혀서 지구촌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편, 2004: 9-40).

한편 박철웅(2011)은 청소년국제교류가 지향해야 할 과제를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선택적 활동이거나 소수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활동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필수적이며 자신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만인 필수 통과 의례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리더십(global leadership)에서 글로벌 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글로벌 생활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중심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인프라의 새로운 배열을 시도할 때라고 하였다.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은 외국과의 인적, 물적, 문화적, 사상적 상호교류를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구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개발하여 평화적 공동체적 삶을 창조하고자 하는 청소년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국제교류가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청소년 정책으로 전면적 평가와 이를 통한 새로운 개념화 및 표준을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참여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본 연구는 청소년국제교류의 '현재'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청소년의 요구에 따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의미를 갖는다.

2. 청소년 국제교류 유형

청소년 국제교류 유형은 활동의 형태, 주제, 추진 국가, 사업 시행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화는 활동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인데, 대체로 '저개발 국가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국가 간 문화교류를 위한 활동, 배낭여행, 국제회의, 캠프' 등으로 나뉘진다. 또한 추진 주체에 따라 정부주도 국제교류, 민간주도 국제교류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밖에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교류방식을 별도의 기준에 의해 유형화하는 분류도 가능하다. 예컨대 윤철경(2000)은 청소년 교류의 국제적인 비교를 시도하며 유럽형, 북미형, 일본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장에서는 '정부주도 국제교류에 참여한 청소년이 참여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려는 본 연구의 주제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국제교류사업의 흐름과 유형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1) 정부주도 국제교류사업 흐름

세계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되었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를 위해서는 세계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가 수호되어야 한다는 자각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세계화에 따른 상호의존, 공동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위한 세계교육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활성화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국제교류는 1965년 말레이시아와 국가 간 청소년 교류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주도 청소년 국가교류는 『국가 간 청소년교류』를 중심으로 점 차 교류국가를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으며 전근대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2000년 이후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변화를 통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국제교류활동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비로소 전근대적인 상황을 벗어나 발전해왔다.

구체적으로 정부 주도 국제교류가 이러한 패러다임을 반영하게 된 시기는 2006년 이후라 할 수 있다. 당시 청소년 관련 정부 전담 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2006년 기존 국제교류활동의 틀을 깨고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창의성을 살려 세계 각국의 장점 분야에 대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해외파견사업’인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2008년도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련 업무를 이관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무대에서 외국의 청소년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개척정신을 심어주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고양’하고자 ‘국제회의 및 행사 파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외국의 사회와 문화, 정치경제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진로선택과 미래설계, 글로벌역량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하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접합되면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 결과 이 두 개의 사업은 현재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 중점추진사업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 정부 주도 국제교류사업 유형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는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주도 국제교류사업은 크게 정부기관 중심 국제교류, 청소년해외체험프로그램, 국제행사 지원 프로그램 이상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가지 유형별 대표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중심 국제교류

①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양국 청소년 담당 부처 간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대상국의 청소년기관 및 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간 토론, 민박,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0년에는 23개국과 파견 335명, 초청 325명 등 총 660명의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표 II-1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현황(2009.12.31)

구 분	체 결 국
총 29개국	
아시아 (9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유럽 (10개국)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중남미 (2개국)	칠레, 멕시코
중동·아프리카 등(8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니지

자료 :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백서.

표 II-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현황(2009.12.31기준)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최초 시행 년도	약정 내용 (인원·기간)	2009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한말문화협정('65) 한-말 청소년교류 약정('92.4) 지도자 15명 교류 추가-공공행정처	'79	15명 10일간 ('02년부터 30명)	529명	538명	1,067명
사우디아라비아 (청소년복지처)	양국정부합동 위원회 합의('81)	'81	10명 10일간	254명	255명	509명
일 본 (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87	40명 15일간 ('03년부터 30명씩, 초청국 전액부담)	660명	756명	1,416명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최초 시행 년도	약정 내용 (인원·기간)	2009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중 국 (중화전국청년 연합회)	양국수교시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양해각서('98)	'93	20명씩10일간 ('98년부터40명)	565명	597명	1,162명
헝가리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92)	'93	15명 10일간	25명	57명	82명
러시아 (교육부)	청소년협력계획서('95)	'94	30명씩 기간 미 명시 ('01부터 10명 8일간)	145명	148명	293명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청소년교류협력계획서('95) 청소년교류약정서('07.9.)	'96	24명 10일간 ('07년 갱신 10~20명, 10일간)	113명	130명	243명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94)	'96	15명 2주간 (격년제)	73명	102명	175명
핀란드 (교육부)	청소년협력 협의각서('96) ('05 갱신)	'96	3명/ 7명 6일간 (연초에 협의 결정, 청소년전문가)	48명	66명	114명
칠 레 (청소년처)	청소년협력약정서('96)	'98	20명 이내, 10일간	21명	42명	63명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교류약정서('99) 재약정 체결('04.5.19.)	'99	20명10일간 (베트남초청 30명)	338명	218명	556명
몽 골 (사회복지노동부)	청소년분야협력 약정서 ('012.13.)	'00 사전 합의	10명 이내, 10일간	104명	94명	198명
멕시코 (청소년원)	청소년협력약정서 ('00.11.)	'01	10~20명, 10일간 (인원 및 기간 사전협의)	88명	91명	179명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청소년협력약정서('02)	'02	10~20명, 10일간	69명	77명	146명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 ('02.4.26.)	'03	10~20명, 10일간	2명	0명	2명
체 코 (교육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3)	'03	10명, 10일간	30명	30명	50명
수 단 (청소년체육부)	청소년·체육협력약정서 ('04.5)	'05	10명, 8일간	41명	47명	88명
폴란드 (교육체육부)	청소년·체육교류 양해각서('04.12)	'05	10~20명, 10일간	40명	50명	90명
인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 ('05.4.4.)	'06	10~20명, 5~7일간 (연초 상호협의)	50명	50명	100명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최초 시행 년도	약정 내용 (인원·기간)	2009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파키스탄 (청소년부)	문화교류계획서 (‘05.9)	’06	7명 7일간 (10명,10일간)	40명	9명	39명
이집트 (청소년)	청소년교류양해각서 (‘05.12.14)	’06	10~20명, 10일간	9명	40명	49명
터 키 (청소년체육부)	문화 및 과학 교류계획서 (‘05.9.23)	’06	10~20명, 10일간(청소년)	40명	40명	80명
그리스 (교육종교부)	청소년분야양해각서 (‘06.12.13)	’06	8명, 6일간 (정부공무원5, 지도자3)	10명	8명	18명
스페인 (청소년청)	청소년분야협력프로그램 (‘07.3.26.)	’07	연초협의 (청소년정책수립관계자)	3명	3명	6명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양해각서 (‘07.4.23.)	’08	약20명, 연초 상호협의 (청소년대표, 공무원)	19명	19명	38명
불가리아 (청소년체육처)	청소년분야양해각서 (‘07.12.10.)	’08	10~20명, 10일간 (연초협의)	12명	12명	24명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협력약정 (‘09.6.1)	’10	청소년10 · 지도자10, 10일간	7명	10명	17명
싱가포르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분야 협력 약정 (‘09.6.26.)	’09 (격년)	청소년 및 지도자10, 10일간	0명	10명	10명
튀니지 (청소년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 약정 (‘09.6.30.)	’10	5년 유효, 매년초 협의 결정	0명	0명	0명
29개국				3,342명	3,499명	6,841명

자료 :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백서.

②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한·중청소년특별교류는 2003년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확대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 청소년 500명이 10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 청소년 100명을 초청하였고, 2009년부터는 100명이 증원된 200명을 중국에 초청하였다. 2010년에는 ‘2010 중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중국 측이 400명의 한국 청소년을 초청하기로 해, 총 900명(초청 500명, 파견 400명)의 교류가 시행되었다.

표 II-3 한·중 특별 교류 현황(2009년 기준)

구 분	초 청				파 견			총 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계	
2004	198명 (7.21~7.30)	189명 (11.1~11.10)	100명 (11.17~11.26)	487	-		-	487
2005	192명 (7.6~7.15)	100명 (9.7~9.16)	191명 (11.15~11.24)	483	-		-	483
2006	96명 (5.24~6.2)	193명 (7.5~7.14)	200명 (11.1~11.10)	489	98명 (4.12~4.21)		98	587
2007	200명 (4.7~4.16)	100명 (6.13~6.22)	191명 (11.1~11.10)	491	97명 (7.3~7.12)		97	588
2008	154명 (8.18~8.27)	100명 (10.29~11.7)	150명 (11.5~11.14)	404	95명 (7.22~7.31)		95	499
2009	196명 (7.8~7.17)	99명 (9.16~9.25)	185명 (11.11~11.20)	480	96명 (5.13~5.22)	99명 (8.3~8.12)	195	675

자료 :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백서.

③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한·중·일 3국 정상은 2007년을 “한·중·일 교류의 해”로 설정하고 3자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2007년에는 중국에서 한·중·일 청소년 우호 만남 행사가 개최돼 한국 청소년 100명이 파견되었고 2008년에는 일본에서, 2009년에는 한국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010년에는 제4회 행사가 중국에서 개최되어 한국청소년 100명이 파견되었다. 201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표 II-4 한·중·일 우호 만남 현황(2009년 기준)

회 차	연 도	개최국	장 소	기 간	인 원
1회	2007	중국	베이징	8.16~22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2회	2008	일본	도쿄	9.17~23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3회	2009	한국	서울	7.21~27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자료 :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백서.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집행하는 ‘청소년 자율 프로그램’과 ‘해외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비용은 참여자와 정부가 나누어 부담하고, 저소득청소년이 참여할 경우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표 II-5 청소년 해외체험 활동지원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내 용
청소년 조사·연수단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선진외국의 청소년정책, 인문사회, 이공분야 등을 주제로 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창안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연수활동 지원 * 69개팀 269명 참여(2009)
청소년 국제회의·행사 참여단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다양한 국제회의·행사 등에 청소년들을 파견 * ‘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ystem Dynamics Society’ 등 85명(2009)
청소년 해외테마체험단	대한민국 청소년 발전 프로젝트 청소년에게 세계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강점분야의 연수·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소통능력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19개국 15개 프로그램 284명(2009)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 * 20개국, 19개단체, 34팀, 630명(2009)

자료 :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백서.

①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조사연수단

조사연수단은 4명 내외의 청소년이 1개 팀을 이루어 외국의 청소년분야, 해외 한민족의 생활과 발전방향, 인문사회·이공분야 및 진로·취업분야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활동 주제를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제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선발팀은 선택 주제에 대해 스스로 준비를 갖춰 해외에 나가 조사연수 활동을 펼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조사연수활동을 펼치며, 2010년에는 청소년분야, 인문사회분야, 이공계분야, 진로

취업분야와 기타분야의 75개 팀 300명 규모로 추진하였다.

표 II-6 2009년 해외테마체험 프로그램

사 업 명	시기(기간)	장 소	인원(명)	비 고
필리핀(잠보앙) 기타 청정 환경 테마 체험단	2.19~27	필리핀	22명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필리핀 람사르 습지와 전문 문화 체험단	5.23~31	필리핀	20명	국제학생교류기구 (대구 달성군)
지속가능한 발전	5.3~13	프랑스	20명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국제안보-평화와 분쟁	5.15~24	호주	19명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캠프	6.5~9.25	페루 등 9개국	27명	국제워크캠프기구
아비뇽 축제로 보는 청소년 문화 의 다양성	7.5~15	프랑스	20명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7.13~24	독일	20명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콘야 전통문화 체험	7.22~8.3	터키	19명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스페인-청소년과 참여	9.11~21	스페인	14명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에코스쿨	8.5~20	뉴질랜드	16명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미래식량자원 Aquaculture 대만 체험연수	8.16~22	대만	17명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영국 문화원 관계자 방한	7.20~29	한국	14명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환경과 빈곤 워크숍	12.13~22	라오스	24명	(사)푸른아시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또 하나의 모국 방문 프로젝트	'10.1.19~24	베트남	14명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필리핀	18명	
합 계			284명	

자료 :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백서.

②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 행사참여단

청소년이 스스로 참여할 국제회의나 포럼, 캠프 등을 조사하여 참여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파견대상자를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구체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며, 단순 참관 등은 배제된다. 2009년에는 20개국에 85명이 국제회의행사 참여단으로 참여하였다.

③ “대한민국 청소년 발전프로젝트” 해외테마 체험단

세계 주요선진국가의 선도적 강점분야 등을 체험·연수하여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 배양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에는 19개국 15개 프로그램에 280여명의 청소년을 10일 내외로 파견하였다. 2009년도에는 호주의 국제안보(평화와 분쟁), 독일의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스페인의 청소년과 참여 등이다. 2010년에는 15개 해외테마프로그램에 300명의 청소년을 파견하였다.

④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09년은 아시아 20개국에 34개팀 630여명의 봉사단을 10~14일 내외로 파견하였으며, 2010년에는 700명의 청소년을 파견하였다.

표 II-7 2009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구분	태국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크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라오스	동티모르	계
파견팀수	1	6	4	5	1	2	4	3	2	3	2	1	34
파견자수	17	128	98	87	17	34	68	49	34	51	34	13	630

자료 :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백서.

(3) 국제행사 지원 프로그램

국제청소년 행사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개최하는 아시아 청소년캠프와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청소년광장, 걸스카우트연맹의 국제야영대회 등이 있다. 2010년에는 아시아청소년캠프, 국제청소년광장,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점 국제 패트룰 잼버리, 동북아 청소년포럼, 여수 국제청소년축제, 아시아 청소년 지도자 초청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표 II-8 2009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사 업 명	시기(기간)	장 소	인 원	비 고
제2,3회 코리아홀릭	2.18~21 (5일)	횡성	12개국 120명	한국청소년진흥센터
	6.29~7.3 (5일)	서울, 가평	12개국 110명	
제44차 청년지역행동	7.22~8.2 (12일)	서울, 광주, 제주, 남원, 순천	21개국 70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9년 미래를 여는 아 시아 청소년캠프	7.29~8.13 (15일)	서울, 횡성	18개국 248명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제20회 국제청소년광장	8.18~25 (7일)	서울, 괴산	31개국 115명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제12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8.5~11 (7일)	인천	40개국 8,877명	한국걸스카우트연맹
2009년 아시아청소년지 도자 초청연수	11.17~12.9 (23일)	서울, 천안, 평창 등	6개국 19명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2009년 글로벌프렌드십 캠프	11.27~29 (3일)	강원 인제	16개국 91명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제9회 여수국제청소년축 제	신종플루 확대에 의한 행사 취소			전라남도, 여수시
합 계			9,650명	

자료 :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백서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주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단체와 협력하거나,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참여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국제교류사업의 양적 증가와 함께 주제와 활동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한국에 거주 중인 유학생들과 한국대학생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한국 안팎에서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기회의 균등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전세계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11,503건에 달한다. 이중 한국의 개최건수는 약 3% 정도로 매우 적다.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같은 변화과정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참여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좀 더 실질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이제까지 국제교류와 관련한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행사와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들 논문은 국제교류의 양적 확대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관한 논의는 실증적 규명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당위적 논의가 주를 이루거나 관련된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서 국제교류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제교류사업의 유형 등에서 지적한 대로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활성화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현재까지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 제기된 내용은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증진, 해외취업 등 진로에 대한 영향, 가치관의 변화, 글로벌 리더십 함양,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다문화 수용성 함양, 인적네트워크 확장, 세계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 증진’ 이상 8가지 참여효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 〈표 II-9〉는 국내 연구를 통해 제기된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관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9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

연구자	제 목	효 과
유화진 (1996)	대학생의 해외여행의 교육적 참여효과	해외경험이 개인의 대인관계나 진로 결정에 매우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함.
김신아 (2004)	세계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전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 가치 인지 기회,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 배려에 대한 보편적 가치 중요성, 지구공동체의 성원으로 서 정체성을 갖게 함.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세계적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과 논리적 해석능력 개발, 타인과 효율적으로 협력방식 터득, 청소년 의식세계 확장과 능력개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제시함.
우영주 (2005)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통한 글로벌리더십 함양에 관한 연구	Black, Morrison & Gregersen 의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국제 교류활동 참여 실태 및 글로벌 리더십 수준을 조사한 결과, 국제교류활동 참여경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글로벌

		리더십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오해섭·우영주 (2006)	국제교류 참여와 청소년의 글로벌리더십	청소년국제교류에 참여하였던 경험의 유무가 글로벌리더십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국제교류 참여횟수, 참여기간, 참여정도 중 참여횟수가 글로벌 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윤철경 (2008)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의 해외취업 의사 및 해외취업에 필요한 능력으로서 자신의 글로벌 역량의 구비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해외활동 경험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해외취업에 필요한 능력 구비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 2,898명 대상)
양계민 외(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 문화민족으로서의 한민족정체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접촉경험요인으로 장기 방문 집단이 단기 방문이나 무경험 집단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고 함.
김옥순 (2008)	해외체류 경험과 외국어 사용 능력에 따른 문화간 감수성 수준의 차이	외국어 사용능력과 해외체류경험이 문화 간 감수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임임을 밝힘.
이창호외 (2009)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 개발 전략	체험학습을 통한 사회적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시도이자, 다양한 글로벌 문화 이슈들에 대한 이해와 정의, 평등, 인권, 환경 가치를 구현하는 공동의 책임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 청소년기에 국제 경험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생관과 직업관을 바꿔 놓을 수 있으며, 특히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청소년들은 국제교류와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고정 관념을 불식하고 폭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짐.
김옥순 (2010)	아동의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영역에 국제교류가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남.

제 3 장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1. 연구방법
2.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유형 연구절차
3. 참여효과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와 특성 연구절차

제 3 장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1. 연구방법

1)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가 채택한 연구문제는 총 네 가지로 <연구문제 1>은 Q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유형과 그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연구문제 2>는 앞서 발견한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유형의 실제 빈도분포와 인식유형별 참여자들의 특성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3>은 사업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4>는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국제교류활동의 개선과제와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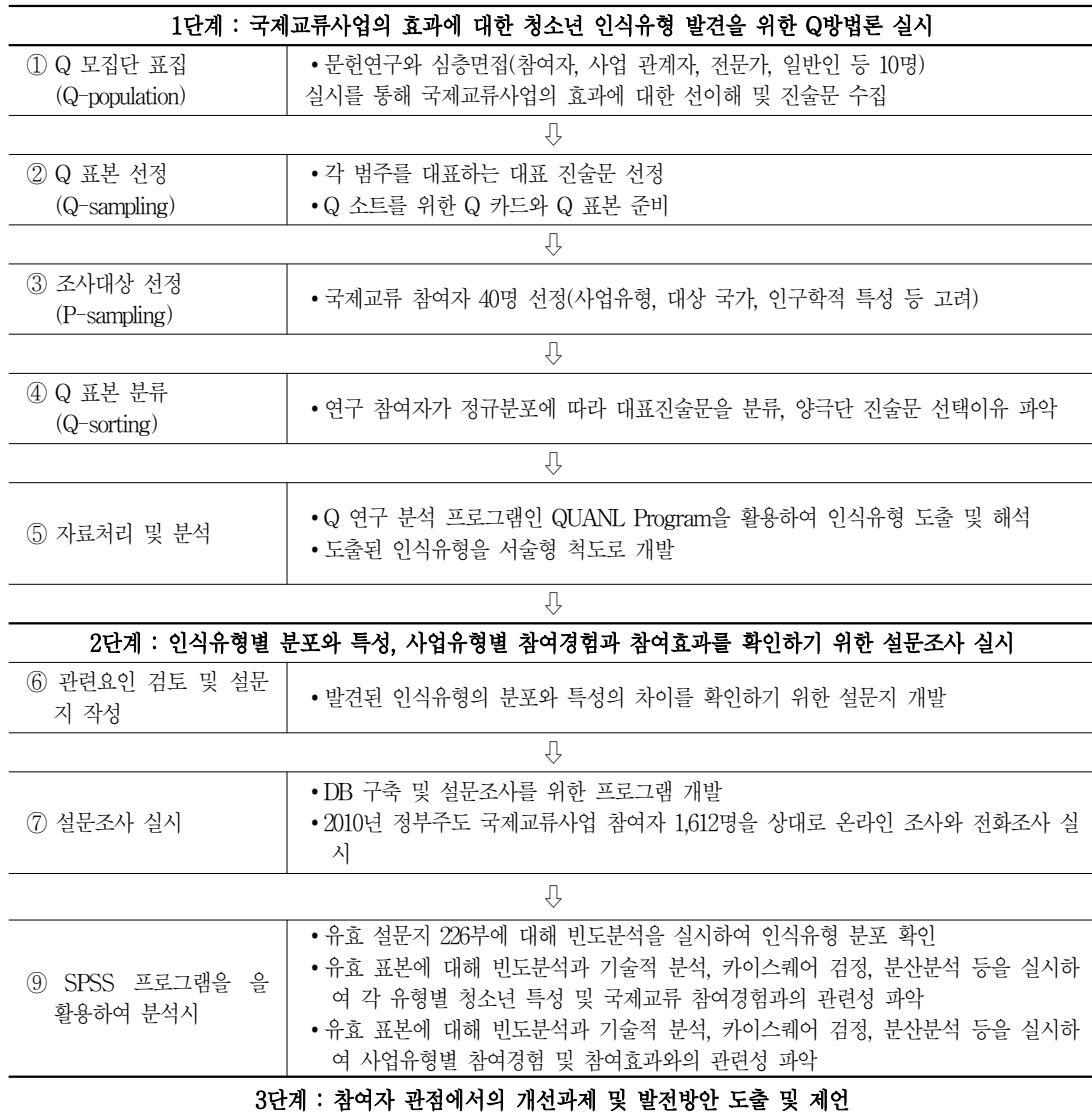
이상 네 가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및 양적 연구를 혼합하는 ‘병합 방법론(combined methodology)’을 적용(Creswell, 1994)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적이지만 상호간에 연관성을 갖고 있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Q 방법론을 본 연구의 주된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유형을 발견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세 번째 연구문제는 국제교류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부차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양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해 발견한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유형들의 특성을 토대로 Q 사정도구(assessment tool)를 개발하여 설문조사에 포함시켜 Q 연구와 설문조사를 연결고리로 사용하였다.

네 번째 연구문제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된 정부주도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개선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그림 III-1】 연구의 총괄적 구조



2) Q 방법론의 개념과 특성

Q 방법론은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 1953)이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에 대한 연구를 위해 창안한 것으로 여론, 태도, 역할, 문화, 의사결정, 가치, 신념,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아이디어 등 인간의 자아와 관련한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Brown, 1980, pp. 58-178).

주관성이란 인간의 선호, 감정, 이상, 취향 등 주관적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것들로서 인간의 본질이나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하지만 인간의 주관성을 탐구하는 것은 구조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 그동안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김홍규, 2008, pp. 22-23).

그러나 주관성의 영역은 이미 현대인들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어떠한 대상에 대한 느낌, 태도, 의견, 선호 등 개인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주관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간과해왔거나 잘못 다루었던 주관성의 문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게 됨으로써 Q의 유용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Q란 현상과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갖는 사람들 사이의 특성을 밝히는 것으로서(김홍규, 2008, p. 222) Q 방법론은 한 개인의 잠재적 행위(potential action)인 주관적 자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다(Stephenson, 1975-1976). Q 방법론에서도 기존의 방법론(R)에서와 같이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측정을 하는데 R에서는 측정(계량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대상으로 상태의 변인(variable in state)들을 측정하는 반면, Q에서는 사람이 변인으로 한 개인이 어떤 대상을 생각하는 방식을 Q 소트를 통해 나타냈을 경우와 같이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를 측정한다(Stephenson, 1982, p. 237).

Q 방법의 과정은 응답자 스스로의 조작(Q sorting)을 통해 자신을 투사하고 그것을 하나의 구조물(operant framework) 안에 투영시킴으로써 설명(Erklärung)과 이해(Verstehen)의 구분을 희석시킨다(Brown, 1980, p. 6). 이것은 Q 방법론이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대신에 응답자 자신의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가는 자결적 정의(operant definition)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Q는 연구자의 가정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방법론인 것이다.

그리고 Q 방법론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쟁점이 어떻게 각 개인에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가설로 향하는 논리(reasoning to the hypothesis) 즉, 가설발견

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김홍규, 2008, pp. 20-21). 또한 Q는 향도적(heuristic) 특성을 지닌 것으로 발견을 통해 이론적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R로서는 인식할 수 없었던 이론적 틀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Q 방법론은 “양적과 질적 연구의 강점을 결합한 것(Dennis & Goldberg, 1996, p. 104)”이며, 다른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Sell & Brown, 1984). 즉, Q 방법론은 하나의 복합적 방법 이상으로서 Q를 통해 확인된 자결적 요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며, 다른 변인들과의 차이점이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Q 연구를 통해 발견한 유형을 R 연구로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하는 유용성이 높은 방법론이다(김홍규, 2008, p. 166).

2.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유형 연구절차

1) Q 표본(Q sample)의 선정

사람은 어떠한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느낌(feeling)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개인의 주관성과 관련된 느낌의 총체를 주관적 통합체(concourse) 즉, Q 모집단(Q population)이라 하며, 다양한 진술이 가능하다(Stephenson, 1953). Q 모집단은 문헌연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하게 되는데 Q 모집단은 진술문, 그림, 음악, 향수, 음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자극물(stimuli)들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손으로 옮겨 분류할 수 있고, 분류하는 응답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자아참조적(self-referent)이 되도록 해야 한다(김홍규, 1990, p. 40). Q 표본은 연구자가 Q 모집단 중에서 주제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무작위로 선정된 항목이다.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 참여효과 등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일 지라도 참여자 개인의 주관성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며, 이것이 바로 통합체 즉 Q 모집단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 모집단을 수집하기 위해 2011년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세 가지 유형의 사업별 지도자 3인, 국제교류 참여자 6인, 학계전문가 1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제교류활동 참여 보고서나 관련 문헌 등을 추가하여 약 100여 개의 Q 모집단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본 주제와 관련하여 대표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선정한 후 동의, 중립, 비동의

내용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총 41개의 Q 표본을 선정하였다(〈표 III-1〉 참조).

표 III-1 Q표본(N=41)

No	Q 표본
1	사전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팀원들과 친해지고 단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던 것 같다.
2	참여했던 국제교류활동이 여러 가지로 인상적이고 좋았기 때문에 지인에게 참여하도록 권유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국제교류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3	단체생활을 하면서 팀원들 간에 갈등도 있었지만 낯선 환경과 의사소통의 문제 등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양보와 배려심이 생긴 것 같다.
4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프로그램도 체계성이 없고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이점이 없어서 참여한 것에 대해 후회를 했다.
5	사전 교육 기간(시간)이 너무 짧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현지에서 적응하고 지내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얻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6	단순히 우리가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우리 것만 전해주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상대국 친구들과 균등한 입장에서 서로 배울 것은 배우고 주고받아야지만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7	예전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강해서 제3국의 사람들을 무시했었는데 국제 교류를 통해 제3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점들도 많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제3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8	한국인이라고 좋은 대접을 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9	입시나 취업을 위해 맹목적으로 공부에만 매달렸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공부만이 내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임을 깨달았다.
10	상대국의 친구나 현지인들이 한국의 기업 이름은 알고 있어도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월주의에 빠진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이 되었다.
11	미디어가 대중에게 서구 중심적인 사고를 주입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특정 문화권에 대한 고정관념에 휩싸였던 것 같다.
12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타문화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문화들을 접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13	다른 나라의 기후나 식생활 등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현지에 가서 직접 체험해 보면서 낯선 세상에서도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14	여행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는데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현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생활 깊숙한 부분까지 체험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좋은 것 같다.
15	예전에는 첫인상이나 선입견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들을 겪게 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심이 생긴 것 같다.
16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지되 타인의 다름을 존중할 줄 아는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가 생긴

- 것 같다.
- 17 특정 종교에 대한 안 좋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현지인들을 만나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단순히 종교가 아닌 생활 방식임을 깨닫게 되었다.
- 18 한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이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한국을 소개하면서 나도 모르게 애국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
- 19 국제교류 참여를 통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관심 있는 국가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 20 국제교류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
- 21 국제교류 참여 후 참여했던 학생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계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고 있다.
- 22 국제교류활동을 통해서 간헐던 나의 사고 체계가 열리는 것 같다.
- 23 자기 부담 비용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참여하는데 책임감이 생겨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 같다.
- 24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방문했던 국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남아서 그곳으로 유학을 가거나 워킹 홀리데이에 지원하게 되었다(지원할 예정이다).
- 25 한국에서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좋은 줄 모르고 불평만 했었는데 제3국의 나라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내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 26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했던 국가에 애정이 생겨서 그 국가와 관련된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27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추억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 28 예전에는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다.
- 29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 같다.
- 30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쉽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느꼈다.
- 31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이라는 막강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방문 국가에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행동에도 조심하게 되는 것 같다.
- 32 예전에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요즘은 신문이나 뉴스를 챙겨 보면서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갖으려고 노력한다.
- 33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소중한 추억들이 나에게 값진 재산이 된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든다.
- 34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 35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접하면서 얻게 된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내 꿈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머리에 그릴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얻게 되었다.
- 36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혼자서 담당해 내는 것보다 팀이라는 조직 안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그 효과는 몇 배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
- 37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른 행복 추구의 방식을 배우게 된 것 같다.
- 38 아직 한국에 대한 정보나 한국 제품이 많이 노출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도전정신이 생겼다.

39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세계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 것 같다.
40	국제 교류를 통해 현지인들과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문화와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41	타문화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것이 정말 위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 P 표본 (P sample)의 선정

P 표본이란 P 모집단(P population)으로부터 추출되어 실제로 Q 분류에 참여하는 응답자를 의미한다. P 표본의 크기는 연구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R 방법론의 경우 일반화가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반면, Q에서는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P 표본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또한 P 표본이 커지면 한 요인(factor)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통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김홍규, 2008, pp. 113-118) 소표본 원칙(small-sample doctrine)을 따르고 있다(Stephenson, 1967, p. 17).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 국제교류활동 즉 국가 간 교류, 국제청소년광장, 국제회의, 한중일 우호교류, 한중 특별교류, 해외자원봉사, 해외조사, 해외테마 총 8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P 모집단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성별, 학력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총 40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Q 소팅 과정에서 2명의 P 표본의 데이터가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제외한 총 38명(국가 간 교류 6명, 국제청소년광장 4명, 국제회의 5명, 한중일 우호교류 5명, 한중 특별교류 4명, 해외자원봉사 5, 해외조사 5명, 해외테마 4명)으로만 P 표본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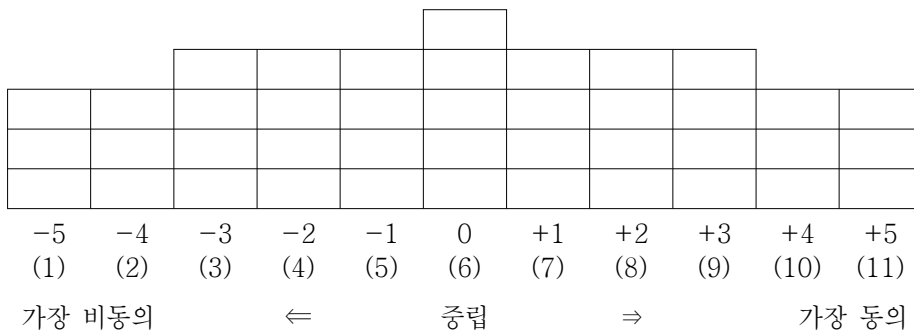
3) Q 소팅(Q sorting)

Q 방법론에서는 특정 항목(Q 표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Q 표본 전체가 응답자 한 사람 내에서 어떻게 분포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특정 항목에 대한 사람 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보다는 한 개인 내에서 항목들 간의 중요성(intra-individual significance)을 비교하는 입사티브(Ipsative)³⁾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P 표본은 주어진 Q 표본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적 의미와 중요성에 따라 Q 표본을 강제분포

(forced-distribution)시켜 배열하는 소팅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것은 한 항목이 어떤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 그 다음의 항목 점수 배정에 영향을 준다. Q 소팅이 끝나면 주어진 분포도에 자신이 배열한 Q 표본의 번호들을 기입하게 한 후, 응답자의 의사를 가장 강하게 반영해 주는 양 극단에 위치한 항목에 대해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인터뷰함으로써 연구자가 응답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유형 해석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한다(김홍규, 2008, pp. 120-125).

본 연구에서 2011년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Q 소팅을 진행하였는데 P 표본에게 41개의 Q 표본(진술문)을 인쇄한 카드를 제공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한 후, 동의(+), 중립(0), 비동의(-)로 각각 분류시키게 했다. 그리고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부터 차례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 (+5)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여 중립 부분에서 마무리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비동의’하는 진술문을 분류케 하였다. 이때 양 끝(-5, +5)에 위치한 각각 3개의 진술문들에 대해서 선택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면담했다(〈그림 2〉 참조).

【그림 III-2】 Q 소팅 분포도(N=41)



4) 자료의 처리

Q 소팅을 끝낸 후 Q 소트지를 점수화하기 위해 분포도에서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5)을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0) 6점, 가장 동의하는 것(+5)은 11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한다. 그리고 부여된 점수를 Q 표본의 번호순으로 코딩한 후 QUANL PC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행하였다.

3) 입사티브란 라틴어로 ‘자아에 관한(of the self)’이란 뜻으로 입사티브 측정이란 두 가지 이상의 자아 진술문 중에서 가장 동의하는 것을 고르게 하는 방법으로, 리커트(Likert) 척도처럼 특성들을 여러 사람에 걸쳐 하나씩 설명하는 것과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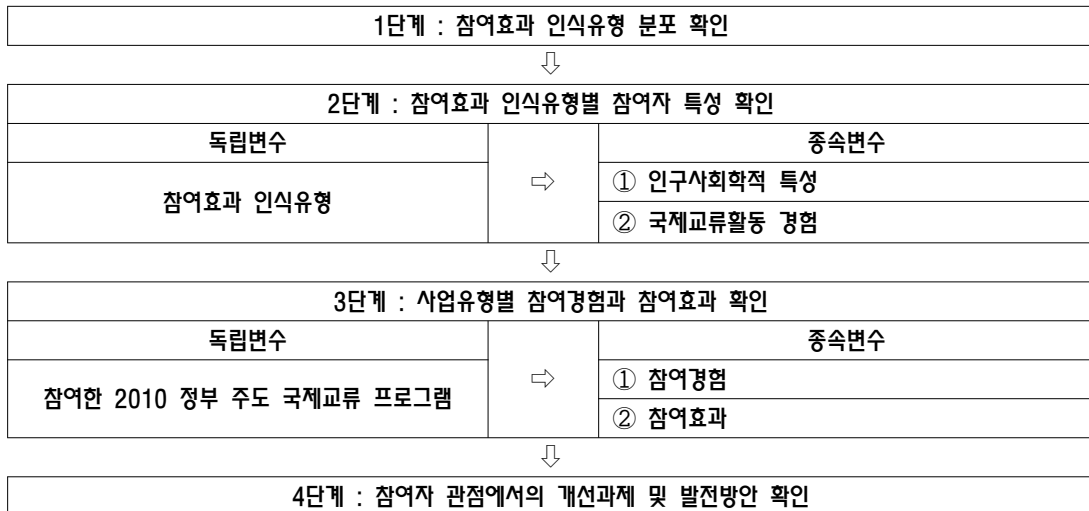
3. 참여효과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와 특성 연구절차

Q 방법론은 진술문들이 개인의 주관성 안에서 어떻게 통합체를 이루는지를 발견하여 가설을 생성하려는 것으로 각 유형에 속한 사람들 간의 특성의 차이를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각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 그리고 인식유형과 참여자 특성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적연구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견된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를 확인하고 각 요인에 속한 참여자 특성의 차이와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정부주도 국제교류참여자 1,6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연구모형

양적연구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빈도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발견된 세 가지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참여효과 인식유형과 참여자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교류 참여경험과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2010년 참여한 정부주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우선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참여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분석하였다.

【그림 III-3】 양적 연구 분석 모형



2) 조사도구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설문지는 참여효과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 각 유형에 속한 참여자 관련 특성의 차이, 사업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 개선과제 및 발전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참여효과 인식유형 분포 확인에 관한 문항

참여효과 인식유형의 경우 Q연구를 통해 도출된 세 가지 유형의 서술적 개념을 진술문으로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진술문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액면 타당도(face validity)검증을 실시하였다. 액면타당도 검증은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인, 연구원 1인, 현장 전문가 1인, 박사급 이상 연구원 2인에 의해 각 진술문이 해당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 적합한 지, 각 문항의 내용이 분명히 알기 쉽게 이해되는지, 각 문항이 서로 겹치는 중복내용은 없는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받아 최종 진술문의 내용을 수정하는데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문항은 응답자가 짧은 시간 안에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구성하였다.

(2)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참여자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문항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제교류활동 경험’이상 두 범주로 나뉘 〈표 Ⅲ-2〉와 같이 구성하였다.

(3) 사업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2010 정부 주도 국제교류 참여경험’과 ‘2010 정부 주도 국제교류 참여효과’ 이상 두 개의 범주로 나뉘 〈표 Ⅲ-2〉와 같이 구성하였다.

(4) 정부주도 국제교류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문항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정부주도 국제교류 개선과제와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개선 과제에

관한 문항,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개시 두 개 문항으로 <표 Ⅲ-2>와 같이 구성했다.

표 Ⅲ-2 설문지 구성

조사영역	변수
참여효과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	- 참여효과 인식유형
인구사회학적 특성(4문항)	- 성별 - 연령 - 영어사용능력 - 해외체류경험
이제까지의 국제교류활동 경험(5문항)	- 프로그램 참여횟수 - 참여프로그램 종류 - 최초 프로그램 참여 당시 신분 - 사후활동 참여 여부 - 국제교류 참여 이후 달라진 점
2010 정부 주도 국제교류 참여 경험과 참여효과 (7문항)	- 참여프로그램 - 상대국가 - 활동기간 - 신청계기 - 참여 당시 신분 - 참여 당시 거주지 - 만족도(8문항)
개선과제 및 발전방안	- 우선개선과제 -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술형)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조사는 2010년 정부주도 국제교류 참여자 1,6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 Ⅲ-3>는 국제교류사업별 참여자 표본수와 응답자수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이다. 각 사업별 참여자 중 이메일이 확보된 명단은 총 1,625명이었다. 이중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한 참여자 13명을 제외한 1,61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별 응답수가 적은 국제회의행사 참여단, 국제청소년광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전화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237부중 중복 응답이 이뤄진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유효설문지 226부를 분석하였다. <표 Ⅲ-3>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부주도 국제교류사업별 참여자

모집단 및 응답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한·중·일 우호의 만남이 23.7%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국가 간 청소년교류 21.21%, 한·중 청소년교류 12.5%, 청소년 해외테마체험 10.57%,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10.27%, 청소년 해외조사연수 9.33%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행사 참여단과 국제청소년광장은 응답률이 극히 낮았다.

표 III-3 국제교류사업별 표본수와 응답률

프로그램명	응답자	표본수	응답율(%)
국가 간청소년교류	63	297	21.21
한·중청소년교류	47	376	12.50
한·중·일 청소년우호의만남	18	77	23.70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3	312	10.57
청소년해외조사연수	28	300	9.33
청소년해외봉사활동	15	146	10.27
국제회의행사참여단	13	81	16.00
국제청소년광장	7	36	19.00
무응답	2	-	-
170	226	1,625	

4) 자료 분석 방법

분석은 SPSS 18.0 컴퓨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분석 방법은 인식유형별 집단의 특성 확인을 위해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인식유형별 특성 차이 확인을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과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카이스퀘어 분석은 인식유형, 성별과 같은 범주형 변수(명목 변수, 서열 변수)로 구성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대표적인 통계기법으로, 두 변수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비모수통계기법이다. 분산 분석은 두 집단 간 또는 그 이상의 집단이 연령과 같은 비율변수로 구성된 하나의 검정변수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는지를 검정할 때 사용하는 통계기법이다.

제 4 장

연구결과

1. 참여효과 인식유형 분석
2.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 인식유형
분포와 특성 분석
3. 국제교류사업 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 분석
4. 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분석

제 4 장

연구결과

1. 참여효과 인식유형 분석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유형 분석은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유형의 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아이겐 값(eigen value) 1.00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유형간의 상관관계계수(correlations between factors), 각 유형에 적재된 유형가중치(factor weight), 설명변량(explained variance), 스크리 검증(scree test)(김홍규, 2008)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1) Q 분석 결과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세 개 유형이 발견되었다. 유형별 아이겐 값은 각각 9.8391, 3.6212, 2.5423으로 제1유형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총 변량은 0.4211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세 가지 유형이 약 42%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IV-1〉 참조). 그러나 아이겐 값이나 변량은 응답자의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Q 방법론에서는 상대적으로 무의미한 개념이 될 수 있다(김홍규, 2008).

표 IV-1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아이겐 값	9.8391	3.6212	2.5423
변량	0.2589	0.0953	0.0669
누적변량	0.2589	0.3542	0.4211

〈표 IV-2〉은 유형간 상관관계계수로서 제1유형과 제3유형간의 상관관계계수는 0.447로 타 유형간의 상관관계계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제2유형과 제3유형간의 상관관계계수는 0.327로 타 유형간의 상관관계계수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2 유형간 상관관계계수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1유형	1.000	0.427	0.447
제2유형	0.427	1.000	0.327
제3유형	0.447	0.327	1.000

각 유형별 P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나이, 파견국가 등이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2유형은 청소년광장, 해외테마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주로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횟수가 대체적으로 1~2회 정도로 타 유형에 비해 참여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제3유형의 경우 국가 간 교류, 해외테마에 참여한 학생들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각 유형에 프로그램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각 유형에서 유형 가중치가 1.000 이상인 P 표본은 그 유형을 대표하는 특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형 해석시 해당하는 P 표본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명한다면 보다 유형의 특성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표 IV-3〉 참조).

표 IV-3 유형별 P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유형가중치

유형	ID	성별	나이	학력(참여당시)	참여 프로그램	파견국가	참여 횟수	유형 가중치
제1유형 (n=15)	7	남	25	대재(대재)	국가 간교류	체코	3	0.3290
	8	남	22	대재(대재)	청소년광장	한국	5*	1.0760
	9	여	25	대재(대재)	청소년광장	한국	4	0.6880
	10	여	25	대재(대재)	청소년광장	한국	1	0.8919
	15	남	25	대재(대재)	국제회의	일본	2	0.7110
	16	여	22	대재(대재)	국제회의	영국	5	0.8706
	18	여	22	대재(대재)	한중·일우호	중국	1	0.6658
	19	남	26	대재(대재)	한중·일우호	중국	1	0.8386
	23	남	25	대재(대재)	한중 특별교류	중국	1	0.7483
	30	여	22	대재(대재)	해외자원봉사	네팔	1	0.6218
	31	여	24	대재(대재)	해외조사	러시아	1	0.3631
	36	여	22	대재(대재)	해외테마	일본	3	1.1334
	37	여	20	대재(고교재)	해외테마	호주	5*	0.8525

	39	남	19	대재(고교재)	해외테마	호주	1	0.7450
	40	남	21	대재(대재)	해외테미	호주	10*	1.2417
제2유형 (n=13)	2	여	23	대재(대재)	국가 간교류	말레이시아	1	1.0045
	3	여	25	대재(대재)	국가 간교류	말레이시아	1	1.1335
	4	남	22	대재(대재)	국가 간교류	사우디	2	0.9531
	5	여	24	대재(대재)	국가 간교류	베트남	1	0.7512
	6	여	24	대재(대재)	국가 간교류	베트남	1	2.9089
	13	여	20	고교재(고교재)	국제회의	싱가폴	2	0.3082
	20	여	28	대학원재(대학원)	한·중·일우호	중국	2	0.4276
	21	여	23	대재(대재)	한·중·일우호	중국	1	0.7738
	22	여	19	고교재(고교재)	한·중 특별교류	중국	1	1.1662
	25	여	18	고교재(고교재)	한·중 특별교류	중국	1	0.8348
	28	남	26	대재(대재)	해외자원봉사	방글라데시	1	1.6471
	29	여	27	대학원재(대학원)	해외자원봉사	인도네시아	2	1.1429
	34	여	24	대재(대재)	해외조사	네팔	5	0.8792
제3유형 (n=10)	11	남	26	대재(대재)	청소년광장	한국	3	0.6979
	12	남	20	대재(고교재)	국제회의	오스트리아	1	0.5157
	14	여	22	대재(대재)	국제회의	미국	1	0.5428
	17	남	22	대재(대재)	한·중·일우호	중국	4	1.1416
	24	여	18	고교재(고교재)	한·중 특별교류	중국	1	0.1627
	26	여	24	대재(대재)	해외자원봉사	네팔	2	1.0321
	27	남	25	대재(대재)	해외자원봉사	라오스	1	0.7612
	32	남	25	대재(대재)	해외조사	러시아	1	0.7673
	33	남	27	대재(대재)	해외조사	미국	1	1.9511
	35	여	22	대재(대재)	해외조사	핀란드	3	1.8978

*' 표기는 해당 수 이상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것을 의미함.

2) Q 유형 해석

Q 유형이란 특정 주제에 관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자결적 조합으로 어떤 특성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닌 한 사람 안에서 특정 지워지는 주관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홍규, 1990).

Q 유형을 해석할 때에는 주제와 관련된 이론, 통상적으로 Q 요인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적지만 인구통계학적 정보, 추가 설문조사 자료, Q 소트의 양극 항목(예컨대 +5, +4와 -5, -4 등)에 대한 추후 인터뷰 자료, Q 소트와 Q 유형 점수표(factor array) 등을 반영함으로써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전제에 의존하는 대신 P 표본 즉 소터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훨씬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김홍규, 2008). 이러한 해석의 과정은 가설 생성적인 것으로 Q 표본의 특정 분포에 대한 해답이나 설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발견된 3가지 유형은 특성에 따라 각각 제1유형은 ‘소통과 네트워크의 기회’, 제2유형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제3유형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로 명명하였다.

(1) 세 유형간의 합의 항목(consensus)

기본적으로 세 유형 모두 국제교류활동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제교류활동을 참여함으로써 “낯선 곳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낯설음이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깨달을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마련인데 타문화권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도 바뀌게 되고, 상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교류활동이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입시나 취업을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참여한 학생도 있고 개인마다 참여 동기가 다양하고 국제교류활동 참여를 통해서 얻게 된 것들도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참여 자체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또 다른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합의항목의 Q 표본과 표본점수

No	Q 표본	표준점수
12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타문화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문화들을 접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1.29
40	국제 교류를 통해 현지인들과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문화와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1.02
10	상대국의 친구나 현지인들이 한국의 기업 이름은 알고 있어도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월주의에 빠진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이 되었다.	-1.01
4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프로그램도 체계성이 없고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이점이 없어서 참여한 것에 대해 후회를 했다.	-1.63

(2) 제1유형: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

제1유형은 국제교류활동을 ‘소통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통을 통해 타인을 인정하는 이해력이 증진되고, 이를 통해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면서 사회적 관계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발판으로서 국제교류활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제교류활동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교육이기도 하지만 참여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개인의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다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자극이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평소에 알기 어려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폭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건인 역할을 하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서로의 나라를 여행하게 되는 경우 가이드를 해주기도 한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아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단순히 친분 유지를 위함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큰 배움을 얻고자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고, 전세계에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자산이 될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국제교류활동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학생들 스스로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후 활동이 활발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외국에서 만난 친구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39.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세계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 것 같다. (+5, -1, 0)

또한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표현하면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제1유형이 소통을 기반으로 개인의 네트워킹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찾아 학습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19. 국제교류 참여를 통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관심 있는 국가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4, -4, 0)

그리고 제1유형은 기본적으로 국제교류활동을 소통의 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참여자들에게 강의 위주로 파견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려는 시스템이 불만스럽다.”고 토로하고 있다. 즉, 이 유형은 “전문가들의 강의와 같은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제로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기참여자들을 통해서 파견국가(상대국)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 교육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긴 시간을 할애해 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5. 사전 교육 기간(시간)이 너무 짧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현지에서 적응하고 지내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얻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3, 0, -4)

비용 측면에서는 “국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비로 여행을 할 때 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여 자체에 책임감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성격에 따라 책임감을 느끼는 정도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의 주인의식을 갖고 국제교류에 임하는 것은 경제적 투자 정도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경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개인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

23. 자기 부담 비용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참여하는데 책임감이 생겨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 같다. (-5, -2, +1)

표 IV-5 제1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1.00 이상)

No	Q 표본	표준점수
39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세계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 것 같다.	1.74
21	국제교류 참여 후 참여했던 학생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계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고 있다.	1.65
35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접하면서 얻게 된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내 꿈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머리에 그릴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얻게 되었다.	1.62
19	국제교류 참여를 통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관심있는 국가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1.52
27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추억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1.49

12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타문화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문화들을 접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1.46
5	사전 교육 기간(시간)이 너무 짧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현지에서 적응하고 지내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얻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1.35
31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이라는 막강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방문 국가에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행동에도 조심하게 되는 것 같다.	1.14
38	아직 한국에 대한 정보나 한국 제품이 많이 노출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도전정신이 생겼다.	-1.12
11	미디어가 대중에게 서구 중심적인 사고를 주입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특정 문화권에 대한 고정관념에 휩싸였던 것 같다.	-1.18
10	상대국의 친구나 현지인들이 한국의 기업 이름은 알고 있어도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월주의에 빠진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이 되었다.	-1.24
17	특정 종교에 대한 안 좋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현지인들을 만나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단순히 종교가 아닌 생활 방식을 깨닫게 되었다.	-1.27
8	한국인이라고 좋은 대접을 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52
4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프로그램도 체계성이 없고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이점이 없어서 참여한 것에 대해 후회를 했다.	-1.65
23	자기 부담 비용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참여하는데 책임감이 생겨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 같다.	-2.06

(3) 제2유형: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제2유형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서 국제교류활동을 경험하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다양한 시각 함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제2유형은 타유형에 비해 국제교류활동에 처음 참여하였거나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국제교류활동이 개인의 좁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낯선 환경,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외국인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례로 제2유형은 대체적으로 지인의 추천이나 여행을 통해 맛볼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얻고자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서 “국제교류활동을 통해서 국내외의 또래 친구들과의 새로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색다르고 값진 추억을 공유하고 얻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상당히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참여 자체에 의의를 두기도 하며,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하는 편협한 시야에서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 또 다른 국제교류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며,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값진 경험들을 느껴볼 수 있도록 국제교류활동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방문하는 곳마다 한국인이라고 좋은 대우를 받게 되서 우쭐해지는 기분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을 대표해서 선발된 일원이라는 막대한 타이틀이 붙어 있고,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서 행동에 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참여자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일인으로서 사명감과 애국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 한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이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한국을 소개하면서 나도 모르게 애국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 (0, +4, -1)

그리고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팀원들과의 화합,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생긴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두 번의 참여로 인해 사회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고나 판단력이 생기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기 보다는 이해와 관용, 세상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함과 포용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29.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 같다. (-2, -4, 0)

표 IV-6 제2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 (± 1.00 이상)

No	Q 표본	표준점수
27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추억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2.13
2	참여했던 국제교류활동이 여러 가지로 인상적이고 좋았기 때문에 지인에게 참여하도록 권유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국제교류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1.55
12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타문화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문화들을 접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1.53
40	국제 교류를 통해 현지인들과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문화와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1.42
18	한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이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한국을 소개하면서 나도 모르게 애국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	1.40

21	국제교류 참여 후 참여했던 학생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계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고 있다.	1.34
31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이라는 막강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방문 국가에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행동에도 조심하게 되는 것 같다.	1.25
14	여행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는데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현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생활 깊숙한 부분까지 체험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좋은 것 같다.	1.10
19	국제교류 참여를 통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관심있는 국가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1.22
28	예전에는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다.	-1.24
29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 같다.	-1.54
24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방문했던 국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남아서 그곳으로 유학을 가거나 워킹 홀리데이에 지원하게 되었다(지원할 예정이다).	-1.60
26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했던 국가에 애정이 생겨서 그 국가와 관련된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1.85
4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프로그램도 체계성이 없고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이점이 없어서 참여한 것에 대해 후회를 했다.	-2.05

(4) 제3유형: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

제3유형은 국제교류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나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책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고 조사했던 지식이나 간접 경험들이 전부가 아니며,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을 하는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즉,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실제와는 다를 때 이를 하나의 문화적 충격으로 느끼기도 하며,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들을 접함으로써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고, 책으로만 접했던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함을 알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면서 이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고 한다. 또한 “국적이나 문화가 서로 다르지만 교류를 통해 협동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으며, 공부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 말고 다른 것에도 눈을 돌려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되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9. 입시나 취업을 위해 맹목적으로 공부에만 매달렸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공부만이 내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임을 깨달았다. (+1, -3, +5)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머무는 동안 음식이나 날씨 등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 적응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발전하였고 인지도도 높아졌지만 아직은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고 개인적으로 인종차별을 느꼈던 경험도 있어서 현지 국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 반면에 이러한 편견들을 타파하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V-7 제3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 (± 1.00 이상)

No	Q 표본	표준점수
9	입시나 취업을 위해 맹목적으로 공부에만 매달렸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공부만이 내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임을 깨달았다.	2.07
13	다른 나라의 기후나 식생활 등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현지에 가서 직접 체험해 보면서 낯선 세상에서도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1.58
30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쉽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느꼈다.	1.22
16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지되 타인의 다름을 존중할 줄 아는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가 생긴 것 같다.	1.22
27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추억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1.13
20	국제교류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	1.02
26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했던 국가에 애정이 생겨서 그 국가와 관련된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1.10
25	한국에서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좋은 줄 모르고 불평만 했었는데 제3국의 나라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내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환경들이 얼마	-1.14

	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4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프로그램도 체계성이 없고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이점이 없어서 참여한 것에 대해 후회를 했다.	-1.19
7	예전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강해서 제3국의 사람들을 무시했었는데 국제 교류를 통해 제3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점들도 많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제3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1.23
5	사전 교육 기간(시간)이 너무 짧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현지에서 적응하고 지내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얻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1.46
41	타문화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것이 정말 위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53
11	미디어가 대중에게 서구 중심적인 사고를 주입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특정 문화권에 대한 고정관념에 휩싸였던 것 같다.	-1.54
17	특정 종교에 대한 안 좋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현지인들을 만나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단순히 종교가 아닌 생활 방식임을 깨닫게 되었다.	-1.75
8	한국인이라고 좋은 대접을 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81

3) 논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로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제1유형은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즉, 이들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실질적)인 기회를 찾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제2유형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넓혔다는 차원에서 ‘좋은 경험했다, 어디서 이런 경험 하겠어, 나중에도 좋은 기억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1유형에 비해 실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피상적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각각 살아가는 방식도 다양하다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각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3유형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로 국제교류활동 참여를 제2유형에 비해 보다 진지한 하나의 문화적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즉,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각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고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하나의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4) 사정도구 개발

사정도구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완성된다. 먼저 Q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발견한 각각의 유형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Q 유형은 특정 주제에 대해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결적 조합이지만 어떠한 특성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안에서 특정 지워지는 주관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해석은 그 안에 감추어진 마음을 알기 위해 모든 정보와 직관을 동원하여 가설생성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김홍규, 2008, pp. 159-164).

사정도구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는 Q 소팅 과정을 거쳐 수집한 Q 소트들을 점수화시켜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얻은 분석결과가 중심이다. 특히, 결과 내의 유형표에서 표준점수가 ± 1.00 이상인 Q 표본(진술문)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다른 유형과의 차이, 각 유형에 해당되는 P 표본들의 추가 인터뷰 자료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유형 해석을 완성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Q 표본과 각 유형에 해당되는 표준점수를 보여주는 유형 배열표(factor array)를 이용하게 되는데 특정 Q 표본에서 유형간 표준점수를 각각 비교하여 ± 1.00 이상의 차이가 나는 판별력(discriminant power)이 높은 Q 표본을 그 유형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추출한다(〈표 IV-8〉 참조).

표 IV-8 유형별 판별력이 높은 Q 표본과 점수

유형	Q 표본	유형별 점수		
		F1	F2	F3
소통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의 기회 (제1유형)	5. 사전 교육 기간(시간)이 너무 짧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현지에서 적응하고 지내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얻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3	0	-4
	19. 국제교류 참여를 통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관심있는 국가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4	-4	0
	23. 자기 부담 비용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참여하는데 책임감이 생겨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 같다.	-5	-2	+1
	39.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형성된	+5	-1	0

	인적 네트워크가 세계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 것 같다.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제2유형)	18. 한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이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한국을 소개하면서 나도 모르게 애국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	0	+4	-1
	29.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 같다.	-2	-4	0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제3유형)	9. 입시나 취업을 위해 맹목적으로 공부에만 매달렸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공부만이 내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임을 깨달았다.	+1	-3	+5

마지막으로 위의 두 단계 즉, 유형별 해석과 각 유형에서 판별력이 높은 Q 표본들을 조합하여 공통점을 찾아내고 타 유형의 특성과 중복되지 않는 속성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 각 유형별로 그 특성을 함축시켜 주는 문단으로 만든다.

〈표 IV-9〉는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유형으로 발견된 세 가지 각 유형들의 대표적인 특성을 정리하여 만든 사정도구(Q-도구)다.

Q-도구는 앞서 설명했듯이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Q를 통해 발견된 자결적 요인(유형)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특정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쉽게 판별하고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연구주제와 관련한 변인들과의 차이점 또는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김홍규, 2008; 6). 즉, Q-도구는 Q연구를 통해 발견된 유형을 R 연구로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9 **유형별 사정도구**

유형	특성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 (제1유형)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유지하면서 내 자신의 관심사와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제2유형)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소중한 추억을 얻게 되었다.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 (제3유형)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 삶과 진로를 진지하게 되 돌아보고 또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2.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 인식유형의 분포와 특성 분석

Q연구를 통해 발견된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세 가지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와, 인식유형별 참여자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방법은 주로 빈도분석, 기술적 분석, 카이스퀘어분석(카이스퀘어 검정), 분산분석(ANOVA)이 사용되었다. 카이스퀘어 분석 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변수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정된 잔차⁴⁾를 검토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관련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크래머의 V⁵⁾값을 검토하였다. 분산분석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에 있어서는 Scheffe의 다중검정치를 사용하였으며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을 경우는 Games-Howell을 사용하였다.

1) 참여효과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

‘국제교류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빈도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유형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54.4%, 제1유형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 25.7%, 제3유형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 순으로 나타났다.

-
- 4) 잔차는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의 차를 말한다. 잔차를 기대빈도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을 표준화 잔차라고 한다. 표준화 잔차값을 제곱해서 합계한 것이 χ^2 값이 된다. 수정된 잔차는 ‘표준화 잔차 값을 표준화 잔차의 분산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다. χ^2 검정을 통해 변수간의 통계적인 관련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잔차값을 활용하면 통계적 유의성 뿐만 아니라 변수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알 수 있다. 행과 열의 수정된 잔차를 나타내면 평균 0, 표준편차 1로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이룬다. 따라서 수정된 잔차의 절대치가 1.96보다 큰 곳은 잔차가 유의하다고 판정되는데, 부호가 플러스면 기대빈도보다 많고, 마이너스면 기대빈도보다 적다는 특징이 있다(노형진, 2008:16).
- 5) 카이스퀘어검정은 관계의 수준만 언급할 뿐 강도(깊이)는 언급하지 않는다.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파이(2*2)와 크래머의 V(2*2를 넘어가는 경우)를 본다. 크래머의 V값이 .1이면 두변수의 관계 강도가 약하고 .3이면 보통 .5는 높다고 해석한다(이윤로·유시순, 2009:91)

표 IV-10 참여효과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

참여효과 인식유형	빈도(명)	비율(%)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	58	25.7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123	54.4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	45	19.9
합계	226	100.0

2)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빈도(명)	비율(%)	N
성별	남	80	35.4	226
	여	146	64.6	
영어사용능력	원어민수준	19	8.4	226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82	36.3	
	일상회화만 가능	117	51.8	
	전혀 못함	8	3.5	
해외체류경험	있다	62	27.4	226
	없다	164	72.6	
연령대	10대	55	24.3	226
	20대	152	67.3	
	30대 이상	19	8.4	
변수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N
연령	22.91	14	52	226

성별은 여성이 64.6%, 남성이 35.4%로 여성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10대 24.3%,

20대 67.3%, 30대 이상 8.4%로 2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22.91세, 최소 연령은 14세, 최대 연령은 52세였다. 30대 이상 응답자는 참여자 명단에 포함된 통역 또는 지도자로 추정된다.

영어사용능력은 원어민수준 8.4%,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36.3%, 일상회화만 가능 51.8%, 전혀 못함 3.5%로 나타났다. 해외체류경험은 ‘있다’ 27.4%, ‘없다’ 72.6%로 나타났다. 해외체류경험은 다른 문화와 인종 또는 민족의 사람들과의 교류경험 유무를 보여주는 변수라 할 수 있다.⁶⁾

(2)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영어사용능력, 해외체류경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표 IV-12>는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명목변수인 성별, 영어사용능력, 해외체류경험과의 관련성은 카이스퀘어검정을, 비율변수인 연령과의 관련성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12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 분(%)	소통과 네트워크의 기회(%) (수정된 잔차)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수정된 잔차)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 (수정된 잔차)	χ^2 (cremerV)
성별	남성 (35.4)	39.7 (.8)	35.8 (.1)	28.9 (-1.0)	ns
	여성 (64.6)	60.3 (-.8)	64.2 (-.1)	69.0% (1.0)	
영어 사용 능력	원활한 의사소통 이상 (44.7)	60.3 (2.8)	39.8 (-1.6)	37.8 (-1.0)	7.792* (.186)
	일상회화 가능 이하 (55.3)	39.7 (-2.8)*	60.2 (1.6)	62.2 (1.0)	
해외 체류 경험	있음 (27.4)	43.1 (3.1)*	23.6 (-1.4)	17.8 (-1.4)	10.180** (.212)
	없음 (72.6)	56.9 (-3.1)*	76.4 (1.4)	82.2 (1.6)	

6) 영어사용능력과 해외체류경험은 국제교류활동의 내용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일 가능성이 크다. 김옥순(2008)의 연구에서 ‘국제교류의 참여효과’ 중 하나인 ‘문화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영어사용능력과 해외체류경험을 파악하였다.

구 분 (%)		N	평균(세)	표준편차	F
나이 (22.99)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25.7)	58	23.71	6.218	ns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54.4)	123	22.98	5.345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19.9)	45	21.69	4.005	
	합계	226	22.91	5.375	

**P<.01, *P<.05, ns=no significant *수정된 잔차값)±1.96

분석결과 성별과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영어사용능력과 해외체류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에 속한 참여자들이 제2유형, 제3유형에 비해 영어사용능력이 높고,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다.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성별의 차이는 남성이 제1유형 39.7%, 제2유형 35.8%, 제3유형 28.9% 순으로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영어사용능력은 ‘원활한 의사소통 이상’이 제1유형 60.3%, 제2유형 39.8%, 제3유형 3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간의 관련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수정된 잔차값을 살펴보면 제1유형이 +2.8로 유의성 판단 기준 ± 1.96 을 넘어 제1유형에 영어사용능력이 높은 참여자가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remerV 값은 .186으로 관련성의 정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해외체류경험은 ‘있다’가 제1유형 43.1%, 제2유형 23.6%, 제3유형 17.8%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remerV 값은 .212로 관련성의 정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수정된 잔차값은 제1유형이 +3.1로 타 유형에 비해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제1유형 23.71세, 제2유형 22.98세, 제3유형 21.69세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3)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국제교류활동 참여경험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국제교류활동 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최초 참여 당시 신분, 사후활동 참여 여부, 참여 후 달라진 점, 참여 프로그램 종류, 참여 프로그램수, 참여 횟수’ 이상 6개 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1) 국제교류활동 경험 특성

응답자들이 이제까지 참여한 국제교류활동 경험은 <표 IV-13>과 같다.

표 IV-13 **응답자의 국제교류활동 경험 특성**

변수		빈도(명)	비율(%)	N
최초 참여 당시 신분	초등학생	6	2.7	226
	중학생	16	7.1	
	고등학생	41	18.1	
	대학생	135	59.7	
	기타	28	12.4	
	계	226	145.6	
사후활동 참여여부	참여한다	89	39.4	209
	참여하지 않는다	137	60.6	
	계	226	34.9	
참여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인생관 형성과 성찰	42	20.1	211
	인적 네트워크 형성	48	23.0	
	외국어 능력 향상	1	0.5	
	타문화에 대한 이해	95	45.5	
	진로에 대한 인식	16	7.6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7	3.3	
	합계	209	245.6	
참여 프로그램	국제회의포럼	43	19.0	226
	친선문화교류	160	70.8	
	캠프	37	16.4	
	조사·연수	53	23.5	
	봉사활동	62	27.4	
	기타	17	7.5	
	계	372	184.6	
참여 프로그램 수	1개	132	58.4	226
	2개	55	24.3	
	3개	25	11.1	
	4개	7	3.1	
	5개 이상	7	3.1	
	계	225	100	
참여횟수	1회	123	54.4	225
	2회	47	20.9	
	3회	27	12.0	
	4회	12	5.3	

	5회 이상	16	7.4	
	계	226	100	
변수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N
참여프로그램 수	1.71	1	10	226
참여횟수	1.99	1	10	225

‘최초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했을 당시 신분’은 대학생 59.7%, 고등학생 18.1%, 기타 12.4%, 중학생 7.1%, 초등학생 2.7%로 약 80%가 대학교입학 이후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초·중·고 시기 국제교류활동 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후활동 참여여부’는 ‘참여한다’ 39.4%, ‘참여하지 않는다’ 60.6%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60%를 넘었다. ‘국제교류활동 참여에 참여한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 45.5%, ‘인적 네트워크 형성’ 23%, ‘인생관 형성과 성찰’ 2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참여한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 종류는 친선문화교류 70.8%, 봉사활동 27.4%, 조사연수 23.5%, 국제회의 포럼 19.0%, 캠프 16%, 기타 7.5% 순으로 나타났다. 친선문화교류 참여자가 많은 이유는 응답자 중 국가 간 청소년교류, 한중 청소년특별교류,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참여자들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참여 프로그램 수는 평균 1.71개, 평균참여횟수는 1.99회로 나타났다.

(2)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국제교류활동 경험의 차이

〈표 IV-14〉는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국제교류활동 경험의 차이에 대한 카이스퀘어 검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검정 결과 ‘사후활동 참여여부’와 ‘참여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4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국제교류 활동 경험

변수	구분(%)	소통과 네트워크의 기회 (수정된 잔차)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수정된 잔차)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 (수정된 잔차)	χ^2 (cremerV)
최초 참여 신분	초등학생(2.7)	3.4 (.4)	0 (-2.7)	8.9 (2.9)	ns
	중학생(7.1)	5.2	7.3	8.9	

		(-.7)	(.2)	(.5)	
	고등학생(18.1)	19.0	17.9	17.8	
		(.2)	(-.1)	(-.1)	
	대학생(59.7)	58.6	61.0	57.8	
		(-.2)	(.4)	(.3)	
	기타(12.4)	13.8	13.8	6.7	
		(.4)	(.7)	(-1.3)	
사후 활동 참여	참여(39.7)	53.4*	30.9*	44.4	9.002* (.200)
	불참(60.3)	46.6*	69.1*	55.6	
		(-2.5)	(2.9)	(-.8)	
참여 후 달라진 점	인생관 형성과 성찰(20.1)	20.4	12.4*	40.5	88.652** (.461)
		(.1)	(-3.0)	(3.7)	
	인적 네트워크 형성(23.0)	53.7*	12.4*	11.9	
		(6.2)	(-3.9)	(-1.9)	
	외국어 능력 향상(0.5)	0	0.9	0	
		(-.6)	(.9)	(-.5)	
	타문화에 대한 이해(45.5)	24.1*	66.4*	16.7*	
		(-3.7)	(6.6)	(-4.2)	
	진로에 대한 인식(7.7)	1.9	4.4	23.8*	
		(-1.9)	(-1.9)	(4.4)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3.3)	0	3.5	7.1	
		(-1.6)	(.2)	(1.5)	

**p<.01, *p<.05, ns=no significant *수정된 잔차값)±1.96

참여효과 인식유형과 ‘최초 국제교류활동 참여 당시 신분(학교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제3유형의 ‘초등학생 시절 최초로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경우’ 8.9%(+2.9)로 평균 2.7%보다 크게 많은데 비해 제2유형은 0%(-2.7)로 크게 적은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사후활동참여여부’의 차이에 대한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creamer의 V값은 .200으로 관련성의 정도는 낮았다. 관련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유형은 사후활동참여자 53.4%, 제3유형은 사후활동 참여자가 44.4% 순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잔차값을 통해 관련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유형은 사후활동참여자 많은 반면(+2.5), 제2유형은 사후활동참여자 적은(-2.9)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참여 후 달라진 점’과의 차이에 대한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cremer의 V값은 .461로 관련성의 정도는 높았다⁷⁾. 이 같은 결과는 응답자들이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로 인식하는 내용과 실제 달라졌다고 인식하는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관련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유형은 ‘인적 네트워크 향상’ 53.7%, ‘타문화에 대한 이해’ 24.1%, ‘인생관 형성과 성찰’ 20.4%순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 66.4%, ‘인생관 형성과 성찰’ 12.4%, ‘인적 네트워크 형성’ 12.4% 순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은 ‘인생관 형성과 성찰’ 40.5%, ‘진로에 대한 인식’ 23.8%, ‘타문화에 대한 이해’ 16.7% 순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잔차 값을 통해 관련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유형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6.2로 크게 많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3.7로 적었다. 제2유형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6.6으로 크게 많았고 ‘인적 네트워크형성’(-3.9), ‘인생관 형성과 성찰’(-3.0)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3유형은 ‘진로에 대한 인식’(+4.4), ‘인생관 형성과 성찰’(+3.7)이 많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4.2)는 적었다.

〈표 IV-15〉은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참여 횟수, 참여 프로그램 수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검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Q연구 결과에서 예측된 유형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5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참여횟수, 참여프로그램 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	Scheffe의 다중비교 검정			F값
			1~2	1~3	2~3	
참여횟수 (1.99)	소통과 네트워크의 기회	2.23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1.83	ns	ns	ns	ns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	2.13				
참여프로그램 수 (1.71)	소통과 네트워크의 기회	1.79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1.59	ns	ns	ns	ns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	1.95				

참여횟수는 제1유형 2.23, 제3유형 2.13, 제2유형 1.83의 순으로 제1유형이 가장 많았다. 참여 프로그램수는 제3유형 1.95, 제1유형 1.79로 3유형이 가장 많았다. 제2유형은 횟수와 프로그램 수 모두 세 유형 중 가장 낮았다.

7) 참여효과 인식유형과 6개 범주로 이루어진 참여 후 달라진 점에 대한 카이스퀘어검정결과 5미만의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47.6%로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빈도수가 적은 ‘외국어사용능력 향상’,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를 결측으로 처리하여 4개 범주로 묶어 재검정을 실시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0$)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은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참여 프로그램유형의 차이에 대한 검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참여프로그램 유형은 그동안 참여한 모든 프로그램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캠프 참여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6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참여프로그램 유형

변수	구분(기대빈도%)	소통과 네트워크의 기회 (수정된 잔차)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수정된 잔차)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 (수정된 잔차)	χ^2 (creamer의 V)
국제회의·포럼	참여 (19)	27.6 (1.9)	13.8 (-2.2)	22.2 (.6)	ns
	불참 (81)	72.4 (-1.9)	86.2 (2.2)	77.8 (-6)	
친선문화 교류	참여 (70.8)	72.4 (.3)	70.7 (.0)	68.9 (-.3)	ns
	불참 (29.2)	27.6 (-.3)	29.3 (.0)	31.1 (.3)	
캠프	참여 (16.4)	19.0 (.6)	11.4* (-2.2)	26.7* (2.1)	6.005* (.163)
	불참 (83.6)	81.0 (-.6)	88.6* (2.2)	73.3* (-2.1)	
조사 연수	참여 (23.5)	20.7 (-.6)	27.6 (1.6)	15.6 (-1.4)	ns
	불참 (76.5)	79.3 (.6)	72.4 (-1.6)	84.4 (1.4)	
봉사 활동	참여 (27.4)	34.5 (1.4)	22.0 (-2.0)	33.3 (1.0)	ns
	불참 (72.6)	65.5 (-1.4)	78.0 (2.0)	66.7 (-1.0)	
기타	참여 (7.5)	6.9 (-.2)	7.3 (-.1)	8.9 (.4)	ns
	불참 (92.5)	93.1 (.2)	92.7 (.1)	91.1 (-.4)	

**p<.01, *p<.05, ns=no significant / *수정된 잔차(±1.96)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제3유형 26.7%, 제1유형 19.0%, 제2유형 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creamer*의 *V* 값은 .163으로 관련성의 정도는 낮았다. 수정된 잔차 값을 통해 관련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유형은 -2.2로 적고, 제3유형 +2.1로 많았다.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국제회의포럼’에 ‘참여’한 경우는 제1유형 27.6%, 제3유형 22.2%, 제2유형 13.8%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친선문화교류’에 ‘참여’한 경우는 제1유형 72.4%, 제2유형 70.7%, 제3유형 68.9%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사연구’에 ‘참여’한 경우는 제2유형 27.6%, 제1유형 20.7%, 제3유형 15.6%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논의

Q연구를 통해 발견된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세 가지 인식유형의 일반적 분포는 제1유형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 25.7%, 제2유형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54.4%, 제3유형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 19.9%로 제2유형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효과 인식유형별 참여자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영어사용능력’, ‘해외체류경험’, ‘사후활동 참여 여부’, ‘국제교류 참여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 ‘국제교류활동 유형 중 캠프 참여 여부’ 이상 5개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를 참여효과 인식유형별로 종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는 다른 그룹에 비해 ‘원활한 소통 이상의 영어사용자’, ‘해외체류경험자’, ‘사후활동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참여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꼽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제1유형이 ‘적극성, 소통능력, 해외체류 경험 등 사회적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사람들로 사후활동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유형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은 전체적으로 제1유형과 대비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제2유형은 ‘원활한 소통 이상의 영어사용자’와 ‘해외체류경험자’, ‘사후활동 참여자’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적었다. 참여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선택한 경우가 크게 많았다. 반면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인생관 형성과 성찰’을 선택한 참여자와 참여한 국제교류 사업유형 중 ‘캠프’ 참여자는 크게 적었다. 한편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참여횟수와 참여 프로그램수

가 세 유형 중 가장 적었다. 이 같은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제2유형은 초기 일반 참여자들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유형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국제교류프로그램 참여 후 달라진 점으로 ‘인생관 형성과 성찰’과 ‘진로에 대한 인식’을 선택한 경우가 크게 많았다. 반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선택한 경우는 크게 적었다. 전체적으로 제1유형에 비해서 원활한 소통 이상의 영어사용자, 해외체류경험자, 사후활동 참여자가 적었지만 제2유형에 비해서는 많았다. 그 동안 참여했던 국제교류 활동유형 중 ‘캠프’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많았다.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참여 프로그램 수가 1.95(평균 1.71)로 세 유형 중 가장 많았고, 참여횟수는 2.13(평균 1.99)으로 제1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나이는 21.69세(평균 22.99)로 세 유형 중 가장 어렸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최초 참가시기가 초중등학생인 참가자가 14.3%로 평균 9.1%보다 많았다(+1.3). 이 같은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제3유형은 조기에 다양한 국제교류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로 속해 있으며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를 자신의 진로 모색과 성찰의 기회로 활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3. 국제교류사업 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 분석

정부 주도 국제교류사업 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가 어떠한 지 그리고 Q연구를 통해 발견된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 인식유형이 참여 사업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0년 정부 주도 국제교류 참여경험

(1) 2010년 정부 주도 국제교류 참여경험 특성

〈표 IV-17〉는 응답자의 2010년 정부주도 국제교류 참여경험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적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17 응답자의 2010 정부 주도 국제교류사업 참여경험 특성

변수		빈도(명)	비율(%)	N
신청계기	스스로 원해서	140	61.9	226
	부모님의 권유	14	6.2	
	친구 또는 지인의 권유	46	20.4	
	학교 추천	10	4.4	
	기타	16	7.1	
	계	226	100	
참여 프로그램	국가 간청소년교류	63	28.1	224
	한중청소년교류	47	21.0	
	한·중·일 청소년우호의만남	18	8.0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3	14.7	
	청소년해외조사연구	28	12.5	
	청소년해외봉사활동	15	6.7	
	국제회의행사참가단	13	5.8	
	국제청소년광장	7	3.2	
	계	224	100	
교류 상대 국가	동북아시아	87	38.5	226
	동남아시아	53	23.5	
	서유럽	23	10.2	
	동유럽	16	7.1	
	북미	14	6.2	
	중남미	4	1.8	
	중동	8	3.5	
	아프리카	6	2.7	
	호주·뉴질랜드	7	3.0	
	다국적	8	3.5	
	계	226	100	
참여당시 신분	초등학생	0	0	226
	중학생	6	2.7	
	고등학생	47	20.8	
	대학생	140	61.9	
	기타	33	14.6	
	계	226	100	
참여당시	서울특별시	120	53.1	226

거주지역	광역시	50	22.1	
	중소도시	45	19.9	
	읍면지역	9	4.0	
	해외 등 기타	2	.9	
	계	226	100	
변수	N	평균	최대값	최소값
참여기간	209	12.68일	356일	1일

‘신청계기’는 ‘스스로 원해서 참여’한 경우 61.9%, ‘친구 또는 지인의 권유에 의해 참여’한 경우 20.4%,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참여’한 경우 6.2%, ‘학교추천으로 참여’한 경우 4.4%, 기타 7.1%로 ‘스스로 참여한 경우’가 60%를 넘었다.

‘참여사업유형’은 ‘국가간 청소년교류’ 28.1%, ‘한·중 청소년교류’ 21.0%, ‘청소년 해외테마체험’ 14.7%, ‘청소년 해외조사연수’ 12.5%, ‘청소년해외봉사활동’ 6.7%, ‘국제회의·행사참가단’ 5.8%, ‘국제청소년광장’ 3.2%였다.

‘국제교류 상대 국가’는 동북아시아 38.5%, 동남아시아 23.5%, 서유럽 10.2%, 동유럽 7.1%, 북미 6.2%, 중동 3.5%, 호주뉴질랜드 3.1%, 아프리카 2.7%, 중남미 1.8%로 아시아국가가 6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럽 17.3%로 아시아와 유럽이 많았다. ‘참여 당시 신분’은 대학생 61.9%, 고등학생 20.8%, 기타 14.6%, 중학생 2.7%, 초등학생은 없었다.

‘참여 당시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 53.1%, 광역시 22.1%, 중소도시 19.9%, 읍면지역 4.0%, 해외 등 기타 지역에 0.9%로, 광역시 이상 대도시 거주자들이 75% 이상을 차지했다. 프로그램 평균참여기간은 12.9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업유형별 참여경험

〈표 IV-18〉은 사업유형별 참여경험의 차이에 대한 검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사업유형별 참여당시 신분과 상대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국가는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77.1%로 유효범위 20%를 크게 넘어 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8 사업유형별 참여경험

변수 (기대빈도)		국가간 청소년 교류	한중청 소년특 별교류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청소년 해외테마 체험	해외조사 연수	해외봉 사활동	국제회 의행사 참가단	국제청소 년광장	χ^2 (CramerV)
신청 계기	스스로신청 (61.9%)	58.7 (-6)	66.0 (6)	44.4 (-1.6)	66.7 (6)	53.6 (-1.0)	73.3 (9)	76.9 (1.1)	71.4 (5)	ns
	부모/지인/ 학교추천 (38.1%)	41.3 (6)	34.0 (-6)	55.6 (1.6)	33.3 (-6)	46.4 (1.0)	26.7 (-9)	23.1 (-1.1)	28.6 (-5)	
참여 당시 신분	초·중·고 (23.5)	12.7* (-2.4)	12.8* (-2.0)	5.6 (-1.9)	66.7* (6.3)	28.6 (7)	26.7 (3)	30.8 (6)	0 (-1.5)	.000** (.460)
	대학생이상 (76.5)	87.3* (2.4)	87.2* (2.0)	94.4 (1.9)	33.3* (-6.3)	71.4 (-7)	73.3 (-3)	69.2 (-6)	100.0 (1.5)	
참여 당시 거주 지역	서울/광역시(75%)	82.5 (1.6)	70.2 (-9)	88.9 (1.4)	69.7 (-8)	57.1 (-2.3)	80.0 (5)	84.6 (8)	71.4 (-2)	ns
	중소도시/ 읍면동 (24.1%)	17.5 (-1.5)	27.7 (6)	11.1 (-1.3)	30.3 (9)	39.3 (2.0)	20.0 (-4)	15.4 (-8)	28.6 (3)	
	해외·기타 (0.9%)	0 (-9)	2.1 (1.0)	0 (-4)	0 (-6)	3.6 (1.6)	0 (-4)	0 (-4)	0 (-3)	
상대 국가	동아시아	54.0 (-1.5)	100 (6.1)	100 (3.5)	36.4 (-3.2)	17.9 (-5.1)	93.3 (2.6)	61.5 (.0)	0 (-3.4)	264.227 **
	유럽	15.9 (-4)	0 (-3.5)	0 (-2.0)	39.4 (3.6)	46.4 (4.3)	0 (-1.8)	15.4 (-2)	14.3 (-2)	
	아메리카	6.3 (-6)	.0 (-2.3)	.0 (-1.3)	15.2 (1.6)	25.0 (3.5)	6.7 (-2)	7.7 (.0)	.0 (-8)	
	중동/ 아프리카	19 (4.9)	0 (-2.0)	0 (-1.1)	3.0 (-8)	3.6 (-6)	0 (-1.0)	0 (-1.)	0 (-7)	
	오세아니아	4.8 (9)	0 (-1.4)	0 (-8)	6.1 (1.0)	7.1 (1.3)	0 (-7)	0 (-7)	0 (-5)	
	다국적	0 (-1.8)	0 (-1.5)	0 (-9)	0 (-1.2)	0 (-1.1)	0 (-8)	15.4 (2.4)	85.7 (11.9)	
	a. 5보다 작은 기대를 가지는 셀이 77.1%로 유효하지 않음									

참여사업유형별 ‘참여당시 신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셀별 사례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초·중·고생과 대학생 이상 2개 변수로 리코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초·중·고생인 경우’가 청소년해외테

마체험 66.7%, 국제회의행사참가단 30.8%, 청소년해외조사연수 28.6%, 청소년해외봉사활동 26.7%, 한중청소년특별교류 12.8%, 국가간청소년교류 12.7%,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5.6%, 국제청소년광장 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 creamer의 V 값은 .460으로 관련성의 정도는 높았다. 수정된 잔차값을 통해 관련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고생중 청소년해외테마체험 6.3으로 크게 많았고, 국가간청소년교류(-2.4), 한중청소년특별교류(-2.0)는 적었다. 청소년해외테마체험이 초중고생등 어린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계기 중 ‘스스로 신청한 경우’가 국제회의행사참가단 76.9%, 청소년해외봉사활동 73.3%, 국제청소년광장 71.4%, 국가간청소년교류 58.7%, 청소년해외테마체험 66.7%, 한중청소년특별교류 66.0%, 청소년해외조사연수 53.6%,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44.4%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참여당시 거주지역이 서울·광역시인 경우가 한중일청소년우호의 만남 88.9%, 국제회의행사참가단 84.6%, 국가간청소년교류 82.5%, 청소년해외봉사활동 80.0%, 국제청소년광장 71.4%, 청소년해외테마체험 69.7%, 청소년해외조사연수 57.1%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참여프로그램별 상대국가의 차이에 대한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나($p<.05$)하였으나 역시 셀의 표본수가 5미만인 경우가 무려 85%로 유효하지 않았다. 대륙별로 6개범주로 리코딩하여 재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p=.000$)하였으나 셀표본수가 5미만인 경우가 77.1%로 유효하지 않았다.

2) 사업유형별 참여효과

사업유형별 참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 후 달라진 점, 참여효과인식유형,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이상 3개 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1) 정부 주도 국제교류 만족도 현황

표 IV-19 2010 정부 주도 국제교류사업 만족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순위
만족도 총평균	226	3.72	.63295	
홍보 및 모집방법	226	3.67	.90375	6
참여자선발방법	226	3.92	.84254	2
사전교육내용	226	3.71	.89021	5
사전교육진행과정	226	3.65	.86173	7
프로그램내용	226	4.07	.85302	1
프로그램진행과정	226	3.92	.88082	2
지도자역량	226	3.80	.93198	4
사후활동지원	226	2.99	1.04349	8

〈표 IV-19〉는 본 조사 응답자들이 2010년 참여한 정부주도 국제교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다. 만족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계산하였다.

전체 만족도를 나타내는 만족도 총 평균은 3.72로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구성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내용 4.07점, 프로그램 진행과정 3.92점, 참가자선발방법 3.92점, 지도자 역량 3.80점, 사전교육 내용 3.71점, 홍보 및 모집 방법 3.67점, 사전교육 진행과정 3.65점, 사후활동 지원 2.99점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구성항목에 대한 만족도 표준편차가 가장 적은 항목은 참가자 선발과정(.84254), 가장 높은 항목은 사후활동지원(1.04349)로 나타났다. 참가자선발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유형 및 응답자간 편차가 크지 않지만 사후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유형 및 응답자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부주도 국제교류사업의 참가자 모집 기준은 대체로 공통적이지만 사후활동의 경우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진행해야할 필수항목이 아닌 재량항목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유형과 담당자에 따른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IV-20〉은 사업유형별 참여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카이스퀘어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참여효과 인식유형과, 참여 후 달라진 점에 대한 분석결과 참여효과 인식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후 달라진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68.8%’로 유효범위 20%를 크게 넘어 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응답률이 적은 ‘외국어능력향상’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를 결측 처리하고 4개 범주로 리코딩하여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역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68.8%로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와 다음과 같다.

표 IV-20 사업유형별 참여효과

변수 (기대빈도)		국가간 청소년 교류	한중청 소년특 별교류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청소년 해외테 마체험	청소년 해외조 사연수	청소년 해외봉 사활동	국제회 의행사 참가단	국제청 소년광 장	χ^2 (Cremerv)
참여 효과 인식 유형	소통과네트워크의 기회(25.7)	28.6 (.8)	17.0 (-1.4)	38.9 (1.4)	30.3 (.8)	10.7 (-1.9)	26.7 (.2)	23.1 (-2)	49.0 (1.1)	ns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54.4)	54.0 (-2)	63.8 (1.4)	33.3 (-1.9)	51.5 (-4)	67.9 (1.5)	40.0 (-1.2)	53.8 (-1)	57.1 (.1)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19.9)	17.5 (-6)	19.1 (-2)	27.8 (.8)	18.2 (-3)	21.4 (.2)	33.3 (1.3)	23.1 (.3)	.0 (-1.3)	
참여 후 달라 진 점	인생관 형성과 성찰(20.1)	17.5 (-6)	11.6 (-1.6)	5.9 (-1.5)	16.7 (-5)	30.8 (1.4)	28.6 (.8)	46.2* (2.4)	42.9 (1.5)	64.702** (.250)
	인적 네트워크 형성(23.0)	24.6 (.4)	20.9 (-3)	47.1* (2.5)	16.7 (-9)	3.8* (-2.5)	28.6 (.5)	23.1 (.0)	42.9 (1.3)	
	외국어 능력 향상(0.5)	0 (-6)	0 (-5)	0 (-3)	0 (-4)	0 (-4)	0 (-3)	7.7* (3.9)	0 (-2)	
	타문화에 대한 이해(45.5)	52.6 (1.3)	58.1 (1.9)	29.4 (-1.4)	40.0 (-6)	57.7 (1.3)	28.6 (-1.3)	15.4* (-2.2)	14.3 (-1.7)	
	진로에 대한 인식(7.7)	5.3 (-8)	2.3 (-1.5)	17.6 (1.6)	16.7* (2.0)	3.8 (-8)	14.3 (1.0)	7.7 (.0)	0 (-8)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3.3)	0 (-1.7)	7.0 (1.5)	.0 (-1.8)	10.0* (2.2)	3.8 (.1)	0 (-7)	0 (-7)	0 (-5)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 68.8%									

**p<.01, *p<.05, ns=no significant / *수정된 잔차(±1.96)

참여 사업유형별 ‘참여효과 인식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국가간 청소년교류는 제2유형 54.0%, 제1유형 28.6%, 제3유형 17.5%순으로 나타났다. 한중청소년특별교류는 제2유형 63.8%, 제3유형 19.1%, 제1유형 17.0% 순으로 나타났다.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은 제1유형 38.9%, 제2유형 33.3%, 제3유형 27.8%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청소년해외테마체험은 제2유형 51.5%, 제1유형 30.3%, 제3유형 49%로 나타났다. 청소년해외조사연수사업은 제2유형 67.9%, 제3유형

21.4%, 제1유형 10.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해외봉사활동은 제2유형 40%, 제3유형 33.3%, 제1유형 26.7%순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행사참가단은 제2유형 53.8%, 제1유형과 제3유형 모두 23.1%로 나타났다. 국제청소년광장은 제2유형 57.1%, 제1유형 49.0%, 제3유형은 0%로 나타났다.

참여 사업유형별 ‘국제교류활동 참여 후 달라진 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국가간청소년교류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 52.6%, 인적네트워크형성 24.6%, 인생관형성과 성찰 17.5%, 진로에 대한 인식 5.3% 순으로 나타났다. 한중청소년특별교류는 타문화에대한이해 58.1%, 인적네트워크 형성 20.9%, 인생관형성과 성찰 11.6%,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7% 순으로 나타났다.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은 인적네트워크형성 47.1%, 타문화에 대한 이해 29.4%, 진로에 대한 인식 17.6%, 인생관 형성과 성찰 5.9%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해외테마체험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 40.0%, 인생관 형성과 성찰인적 네트워크형성진로에 대한 인식이 모두 16.7%,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1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해외조사연수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 57.7%, 인생관 형성과 성찰 30.8%, 인적 네트워크형성·타문화에 대한 이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3.8%로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해외봉사활동은 인생관형성과 성찰, 인적네트워크 형성,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모두 28.6%, 진로에 대한 인식 14.3%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국제회의행사참가단은 인생관 형성과 성찰 46.2%로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 15.4%, ‘외국어능력 향상’과 ‘진로에 대한 인식’이 7.7%로 나타났다. 국제청소년광장은 ‘인생관 형성과 성찰’, ‘인적네트워크 형성’이 모두 42.9%, ‘타문화에 대한 이해’ 14.3%로 나타났다. 수정된 잔차값을 통해 관련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은 ‘인적네트워크형성’ 2.5로 많고, 청소년해외테마체험은 ‘진로에 대한 인식’이 2.0으로 상대적으로 많으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도 2.2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해외테마체험의 경우 초중고생이 66.7%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진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던 점은 이 점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해외조사연수는 인적네트워크형성이 -2.5로 상대적으로 적다. 국제회의행사참가단은 외국어능력향상 3.9로 상대적으로 크게 많으며, 인생관형성과 성찰 2.4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2.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IV-21〉은 사업유형별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사업유형별 ‘사후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사전교육진행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1 사업유형별 만족도

종속변수 (평균)	독립변수	평균	사후검증	F값
			Scheffe의 다중비교 검정	
만족도 총합 (3.72)	국가간청소년교류	3.8294		ns
	한중청소년특별교류	3.7287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3.6528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6705		
	청소년해외조사연수	3.5625		
	청소년해외봉사활동	3.8833		
	국제회의행사참가단	3.6250		
	국제청소년광장	3.4107		
홍보 및 모집 만족도 (3.66)	국가간청소년교류	3.8254		ns
	한중청소년특별교류	3.6383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3.8889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3333		
	청소년해외조사연수	3.5714		
	청소년해외봉사활동	3.8000		
	국제회의행사참가단	3.6923		
	국제청소년광장	3.4286		
참여자 선발 방법 (3.92)	국가간청소년교류	3.9841		ns
	한중청소년특별교류	3.9574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4.0000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5758		
	청소년해외조사연수	4.0357		
	청소년해외봉사활동	4.0000		
	국제회의행사참가단	4.2308		
	국제청소년광장	3.4286		
사전 교육 내용 (3.70)	국가간청소년교류	3.8413		ns
	한중청소년특별교류	3.6383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3.4444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7878		
	청소년해외조사연수	3.6071		
	청소년해외봉사활동	4.2000		
	국제회의행사참가단	3.1538		
	국제청소년광장	3.5714		

사전 교육 진행 (3.65)	국가간청소년교류	3.8095		2.693*
	한중청소년특별교류	3.6383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3.5556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6364		
	청소년해외조사연수	3.4643		
	청소년해외봉사활동	4.1333		
	국제회의행사참가단	2.9231		
	국제청소년광장	3.7143		
프로 그램 내용 (4.07)	국가간청소년교류	4.2063		ns
	한중청소년특별교류	4.0638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3.8333		
	청소년해외테마체험	4.0909		
	청소년해외조사연수	4.0000		
	청소년해외봉사활동	4.0000		
	국제회의행사참가단	4.0769		
	국제청소년광장	4.0000		
프로 그램 진행 (3.42)	국가간청소년교류	4.0000		ns
	한중청소년특별교류	4.0000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3.6667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9091		
	청소년해외조사연수	3.8929		
	청소년해외봉사활동	4.0667		
	국제회의행사참가단	3.7692		
	국제청소년광장	3.4286		
지도자 역량 (3.79)	국가간청소년교류	3.7302		ns
	한중청소년특별교류	3.8936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3.7778		
	청소년해외테마체험	4.0303		
	청소년해외조사연수	3.5000		
	청소년해외봉사활동	4.2000		
	국제회의행사참가단	3.8462		
	국제청소년광장	3.0000		
사후 활동 지원 (2.98)	국가간청소년교류	3.2381		2.224* (.033)
	한중청소년특별교류	3.0000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3.0556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0000		

청소년해외조사연수	2.4286		
청소년해외봉사활동	2.6667		
국제회의행사참가단	3.3077		
국제청소년광장	2.7143		

**p<.01, *p<.05, ns=no significant

사업유형별 만족도 총 평균은 청소년해외봉사활동 3.88, 국가간청소년교류 3.82, 한중청소년특별교류 3.72 정도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홍보및모집은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3.88, 국가간청소년교류 3.82, 청소년해외봉사활동 3.80, 국제회의행사참가단 3.69, 한중청소년특별교류 3.63, 청소년해외조사연수 3.57, 국제청소년광장 3.42, 청소년해외테마체험은 3.33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참여자선발방법은 국제회의행사참가단 4.23, 청소년해외조사연수 4.03, 청소년해외봉사와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4.00, 국가간청소년 3.98, 한중청소년특별교류 3.95,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57, 국제청소년광장 3.42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사전교육내용은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4.20, 국가간 청소년교류 3.84,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78, 한중청소년특별교류 3.63, 청소년해외조사연수 3.60, 국제청소년광장 3.57,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3.44, 국제회의행사참가단 3.57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사전교육진행은 청소년해외봉사활동 4.13, 국가간청소년교류 3.80, 국제청소년광장 3.71, 한중청소년특별교류 3.63,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63, 청소년해외조사연수 3.46, 국제회의행사참가단 2.92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5)

프로그램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았다. 국가간청소년교류 4.20, 청소년해외테마체험 4.09, 국제회의행사참가단 4.07, 한중청소년특별교류 4.06, 청소년해외조사연수, 청소년해외봉사활동과 국제청소년광장 4.00,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3.83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프로그램진행은 청소년해외봉사활동 4.06, 국가간청소년교류와 한중청소년특별교류 4.0,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9, 청소년해외조사연수 3.89, 국제회의행사참가단 3.76,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3.66, 국제청소년광장 3.42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지도자역량은 청소년해외봉사활동 4.20, 청소년해외테마체험 4.03, 한중청소년특별교류 3.89, 국제회의행사참가단 3.84, 한중일청소년우호의만남 3.77, 국가간청소년교류 3.73, 청소년해외조사연수 3.50, 국제청소년광장 3.00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사후활동 지원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국제회의행사참가단 3.30, 국가간청소년교류 3.23, 한중일우호의만남 3.05, 한중청소년특별교류와 청소년해외테마체험 3.00, 국제청소년광장 2.71, 청소년해외봉사활동 2.66, 청소년해외조사연수 2.42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 < .05$).

3) 논의

사업유형별 참여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참여시 신분’, ‘참여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청소년테마체험의 경우 초중고생 참여율이 66.7%로 높았으며 국제회의행사참가단, 청소년해외조사연수, 청소년해외봉사활동은 30%내외, 한중청소년특별교류, 국가간청소년교류는 약 12%, 한중일 청소년우호의 만남과 국제청소년 광장은 5%미만으로 주된 참여자 연령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초중고생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응답자 참여경험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광역시 거주자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참여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사업유형별 참여효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결과 참가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사전교육진행 만족도, 사후활동 진행 만족도 이상 3개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참여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전체적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제2유형의 비중이 높았지만,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의 차이를 통해 상대적 차이를 살펴보면 한중일청소년우호의 만남은 ‘인적 네트워크형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청소년해외테마체험은 진로에 대한 인식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중일청소년우호의 만남의 경우 초중고생 참가가 5.6%인데 비해 청소년해외테마체험은 초중고생 참가가 66.7%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차이는 참여 연령층의 차이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초중고생 참가자가 많은 청소년해외테마체험의 경우 진로탐색에 대한 응답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모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전교육진행과 사후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청소년해외봉사활동의 경우 사전교육진행 만족도는 4.13으로 1위를 차지했으나 사후활동지원은 2.66으로 7위를 차지하여 사전교육과 사후교육에 대한 만족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반면 국가간청소년교류는 사전교육진행 3.80, 사후활동지원 3.23으로 모두 2위를 차지해서 사전, 사후활동 지원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활동진행과 사후활동지원은 모두 사업주체와 담당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내용이며 국제교류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사전교육진행과 사후활동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메뉴얼 개발 등을 통해 보다 보편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과 서베이 실시 과정에서 2010년 참여한 정부주도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개선과제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켜 참여자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1) 국제교류사업 개선과제

정부 주도 국제교류사업의 개선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교류활동의 8개 구성요소 중 우선적 개선 과제’를 3개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IV-22>은 2010년 정부주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선과제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IV-22 국제교류사업 개선 과제

변수	1순위		2순위		3순위		총합		총합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홍보 및 모집 방법	44	19.5	23	10.2	24	10.6	91	13.4	3
참가자 선발 방법	22	9.7	19	8.4	16	7.1	57	8.4	8
사전교육 내용	15	6.6	32	14.2	30	13.3	77	11.3	5
사전교육 진행과정	10	4.4	27	11.9	23	10.2	60	8.8	6
프로그램 내용	43	19.0	28	12.4	28	12.4	99	14.6	2
프로그램 진행과정	21	9.3	39	17.3	19	8.4	79	11.6	4
지도자 역량	9	4.0	16	7.1	34	15.0	59	8.7	7
사후활동 지원	62	27.5	42	18.5	52	23.0	156	23.16	1
계	226	100	226	100	226	100	678	99.96	

1순위로 제시된 개선과제는 역시나 사후활동지원 27.5%, 홍보 및 모집방법19.5%, 프로그램내용 19.0%, 참가자선발방법 9.7%, 프로그램진행과정 9.3%, 사전교육내용 6.6%, 사전교육진행과정 4.4%, 지도자 역량 4.0%로 나타났다. 2순위로 제시된 과제는 사후활동지원 18.5%, 프로그램 진행과정 17.3%, 사전교육14.2%, 프로그램 내용 12.4%, 사전교육 진행과정 11.9%, 홍보 및 모집 방법 10.2%, 참가자 선발 방법 8.4%, 지도자역량 7.1%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 제시된 개선과제는 사후활동 지원 23.0%, 지도자 역량 15.0%, 사전교육내용 13.3%, 프로그램내용 12.4%, 홍보 및 모집방법 10.6%, 사전교육진행과정 10.2%, 프로그램진행과정 8.4%, 참가자선발방법 7.1% 순으로 나타났다.

2010 정부주도 개선 과제로 제시된 내용을 순위에 의미를 두지 않고 모두 합할 경우 사후활동지원 156건 23.2%, 프로그램 내용 99명 14.6%, 홍보 및 모집방법 13.4%, 프로그램 진행과정 11.6%, 사전교육내용 77건 11.3%, 사전교육진행과정 8.8%, 참가자선발 8.4%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활동지원, 프로그램내용, 홍보 및 모집방법의 순으로 개선과제가 나타난 점은 1순위 개선과제의 순위와도 일치한다.

한편 ‘프로그램 내용’의 경우 만족도가 1위로 높아 개선 필요성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분석결과 우선개선과제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참가자 관점에서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사실 프로그램 진행과정보다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향후 이 점은 국제교류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외 홍보와 모집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본 연구 초기 Q 진술문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심층면접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개선과제다.

2) 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표 IV-23〉은 2010년 정부 주도 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한 후 수집된 169개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IV-23 **국제교류사업 개선의견**

구분(의견수)	주요내용
홍보 및 모집(33)	다양한 사람들이 국제교류활동을 알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공문에 의해 학교를 통해 홍보할 경우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셜네트워크, 카페, 다양한 사이트 활용, 기 참여자를 통한 교내 홍보, TV 등 보다 대중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선발기준과 방법에 대한 의견(21)	선발기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 편차가 나타났다. 선발기준을 강화하여 자질과 외국어능력 등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의견과 반대로 보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오픈하고, 지방참여자, 중고등학생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선발기준에 대한 내용은 국제교류활동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선발기준과 방법은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 생각된다.
사전 교육 내용 관련(12)	사전교육이 중요하지만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체계적인 사전 교육 및 기관 컨택, 현지 문화에 대한 사전 이해 강화, 사전교육 시간을 좀 더 늘려줄 것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사전 교육 진행 관련(14)	사전교육 시간을 늘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비가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사전교육시 선배단원의 피드백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지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프로그램 내용 관련(14)	프로그램 실행 시간을 늘리고, 홈스테이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현지인과 좀 더 접촉기회가 많아지길 희망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프로그램 진행 관련(12)	통역 지원을 강화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의견과 참여자가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통역시

	단순 통역자 보다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도자 관련(10)	지도자도 사전 교육을 받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지도자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데 교육을 통해 일정한 자질과 내용을 갖추기를 바라는 내용과, 정부부처 공무원이 참여한 경우 특별한 관련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후활동 지원 관련(33)	대부분 사후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취약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사후활동의 경우 국제교류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므로, 국제교류활동이 1회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비용 지원 관련(17)	전반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항공료와 숙박료가 좀 더 저렴한 시기로 조절하여 비용을 절감했으면 한다는 의견과 비용 정산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3) 논의

참여자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요소별 우선 개선과제,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참가자 관점에서의 발전방안을 알아보았다.

‘우선 개선과제 응답내용’ 분석 결과 사후활동지원, 프로그램 내용, 홍보 및 모집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분석 결과 사후활동지원(33개), 홍보 및 모집(33개), 선발방법(21개) 순으로 많았다. 한편 <표 IV-19>에서 제시한 ‘만족도’ 분석 결과, 만족도는 사후활동 지원, 사전교육진행, 홍보 및 모집 순으로 낮았다. 이상 세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참여자들은 ‘사후활동 지원’과 ‘홍보 및 모집방법’ 개선을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선의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개선의견 방향이 공통적인데 비해, ‘선발기준과 방법’에 대한 제언은 배치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 기회를 갖기 어려운 사람들 예 컨데 지방참가자와 중고등학생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균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질과 능력을 갖춘 참가자를 엄선해서 국제교류활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대비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점은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철학과 목적, 효과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본 연구 초기에 이뤄진 심층면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중 외국어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참여자들로부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질을 갖추지 못한 어린 참가자, 사회적 배려에 의한 저소득층 참가자의 선발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제교류활동의

목적을 고려하여 자질을 갖춘 참여자를 선발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 ‘외국어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들만 국제교류에 참여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협업능력을 키우는 장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연구의 함의와 제언
3.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청소년국제교류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개인은 다양한 타문화에 접촉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신뢰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이러한 능력은 세계화 시대에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역량이 된다(Banks, 2008)

특히 제 2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기에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고,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한국,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가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인식유형은 어떠한지, 인식유형의 분포와 특성은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개선과제와 발전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연구 질문에 따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제언과 함의,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가 설정한 네 가지 질문에 따라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내용과 유형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문헌연구와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Q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또한 Q연구과정에서 2010년 정부 주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6인, 지도자 3인, 전문가 1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79개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에 대한 진술문을 수집한 후 41개의 대표진술문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40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Q소팅을 실시한 후 QUAN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낯선 곳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깨닫는 동기가 되었다. 또한 체험 및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더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는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면서 자신의 관심사와 이상이 실현되었다’를 주된 참여효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1유형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회를 활용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제2유형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은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소중한 추억을 얻게 되었다’를 주된 참여효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2유형은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접한 기회 자체를 좋은 경험과 추억으로 인식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제3유형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는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 삶과 진로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또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를 주된 참여효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3유형은 국제교류활동을 자신의 가치관과 진로를 성찰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둘째,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유형의 분포와 특성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Q연구를 통해 도출된 세 개의 인식유형을 서술형 척도로 개발한 후, 2010년 정부주도 청소년국제교류참여자 1,6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유효설문지 226부에 대해 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 및 기술적 분석, 카이스퀘어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제1유형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 25.7%, 제2유형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54.4%, 제3유형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19.9%로 제2유형>제1유형>제3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유형의 특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제교류활동경험 특성과의 관련성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영어사용능력, 해외체류경험유무, 국제교류 참여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사후활동 참여여부, 캠프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1유형은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자, 해외체류경험자, 사후활동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참여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꼽는 사람이 크게 많았다. 제2유형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은 전체적으로 제1유형과 대비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영어사용능력이 높은 사람과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사람, 사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국제교류활동 유형 중

‘캠프’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2유형은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대다수 일반 참여자 또는 초기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제3유형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는 영어사용능력 및 해외체류경험자, 사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제1유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고 제2유형에 비해서는 많았다. 또한 국제교류활동유형 중 ‘캠프’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많았다. 참여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인생관 형성과 성찰’, ‘진로에 대한 인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셋째, 사업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는 어떠한가? 에 대한 분석결과 참여경험의 차이는 ‘참여시 신분’, ‘참여기간’ 등 2개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사업유형별 참여효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사전교육 진행, 사후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 참여 후 달라진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활동 진행과 사후활동지원은 모두 사업주체와 담당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내용이면서 국제교류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사전교육진행과 사후활동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메뉴얼 개발 등을 통해 보다 보편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발전방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10년 참여한 정부 주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우선 개선 과제,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분석하였다. ‘우선 개선과제 응답내용’ 분석 결과 사후활동지원, 프로그램 내용, 홍보 및 모집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분석 결과 사후활동지원(33개), 홍보 및 모집(33개), 선발방법(21개) 순으로 많았다. 한편 4장에서 제시한 ‘만족도’ 분석 결과 사후활동 지원, 사전교육진행, 홍보 및 모집 순으로 낮았다. 이상 세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참여자들은 ‘사후활동 지원’과 ‘홍보 및 모집방법’ 개선을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함의와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국제교류의 참여자들이 참여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유형과 인식유형의 분포는 어떠한지, 인식유형별 참여자 특성은 어떠한지, 사업유형별 참여경험과 참여효과는 어떠한지를 규명하였다. 더불어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개선과제와 발전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정부 주도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하는 Q 방법론과 서베이를 활용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시도는 참여자 관점에서 청소년국제교류의 참여효과를 규명한 국내 첫 시도로 의미가 크다. 또한 수요자 관점에서 청소년국제교류의 실태를 이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를 ‘소통 증진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기회, 새로운 경험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 확장, 삶에 대한 성찰과 진로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연구과정에서 비교적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국제교류의 개선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참여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본 연구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며 반갑다는 공통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수혜자 관점에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현황을 이해하는 자료로,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참고가 될 실증자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좀 더 활발한 청소년 관점에서의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결과 밝혀진 세 가지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 인식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같은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제교류를 통해 소통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청소년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를 넓힌 추억으로 인식하는 청소년, 그리고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진로 모색의 계기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요구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여자 특성별 요구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를 좀 더 심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제기한 ‘사후활동지원 강화’는 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전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참여자들의 개인별 수준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목표와 진행 및 평가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 간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역할 분담, 개별적 역량에 따른 역량 강화가 모든 참여자 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하는 등 보다 세심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드러난 세 가지 유형은 청소년국제교류 참여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세 가지 유형의 특성을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통과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언어능력, 해외체류경험 등 사회적 경험, 사후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제1유형은 리더로서의 자질이 강하고 실용성이 강한 반면 집단의 촉진자 또는 추종자로서의 자질(followership)이 부족할 수 있다. 제 2유형은 대다수 참여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며, 특히 초기 참여자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를 자신의 삶 속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제3유형은 성찰성과 팔로워십이 강한 반면 실용성과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을 눈앞에 둔 중고등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세 가지 유형을 서열화하기 보다는 각 유형의 강점을 활용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나보다 나은 우리’를 향한 공동체 속에서의 협업능력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 유형의 특성을 고르게 활용하고 강화하므로 서 바람직한 국제교류활동이 일부 엘리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청소년을 위한 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의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측면의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통역자와 지도자에 대한 요구와 직접 접촉을 강화해줄 것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국제교류 지도자의 인력풀 관리 및 지원 체계 마련, 관련 교육자료 및 정보 공유, 사전교육에 기존 네트워크 활용,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등 전문성 향상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의 글로벌 인재양성 인프라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달리 비교적 열악한 실정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이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8억 8,500만 유로를 투입해 청소년들을 위한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의 젊은이와 청소년기관과의 교류와 파트너십을 추구하며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비영리,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단결심을 계발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청소년교류와 청소년발의권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참여, 창의성을 장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경험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 청소년의 만족도 및 참여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교류활동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매뉴얼 및 사례, 프로그램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내실화, 전략적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참여자 관점에서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효과를 질적으로 이해하고, 일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양적연구를 병행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주제를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활동유형별 참여효과를 하위 영역별로 범주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 등을 통해 현황을 이해하고 참여자 관점에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국제교류의 질적 향상이 있길 바란다. 아울러 후속 연구를 실시할 경우 표본 수를 늘려 본 연구에서 검증하지 못한 예측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편(2009). 열린 세상 푸른 청소년.
- 김경준(1995).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옥순(2008). 해외체류 경험과 외국어 사용 능력에 따른 문화 간 감수성 수준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제5권 1호, pp. 45-67.
- 김옥순(2010). 아동의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제26권, pp. 8-28.
- 김홍규(1990). Q 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 김홍규(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형진(2008). SPSS 대응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울출판사.
- 박진규(2004). 우리나라 국제 청소년교류 현황과 교류유형 탐색에 관한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3호, pp. 471-506.
- 박철웅(2011). 독일의 청소년국제교류 동향.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 II(2011. 6.24, 서울교육문화회관).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 정진경(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백서.
- 염성원(2003).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활동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홍보학연구, 제7권 2호, pp. 98-142.
- 오해섭(2008). 청소년 글로벌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해섭, 윤철경(2004).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서울: 인문사회연구회.
- 요네오 이시(2000). 일본의 발전과 국제 교육교류의 과거와 미래, 21세기 국제교육교류

- 포럼, 서울: 국제교육진흥원
- 윤철경(2008).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박선영·송민경(2010).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이윤로·유시순(2009). 사회복지사를 위한 SPSS. 서울: 학지사.
- 이창호·오해섭(2009).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영승(1999). 청소년교류의 정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최병익 외(2004). 농촌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체제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 지, 제11권 제2호, pp. 241-250.
- 한국주관성연구학회(2001). 주관성 연구: Q 방법론 및 이론. 제6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 스.
-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교류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 과제 국제세미나(2010.7.9, 서울교육문화회관).
- Banks, J. 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Cresswell, J. W. (199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 CA: Sage.
- Dennis, K. E. & Goldberg, A. P. (1996). Weight control self-efficacy types and transitions affect weight-loss outcomes in obese women. *Addictive Behaviors*, Vol. 21, pp. 103-116.
- Ellingsen, I.T., Strokken, I. & Stephens, P.(2010). Q methodology in social work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Vol. 13, NO. 5. pp. 395-409.
- Goto, K., Tiffany, J., Pelto, G. & Pelletier, D.(2008). Use of Q methodology to analyze divergent perspectives on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as a strategy

- for HIV/AIDs prevention among Caribbean youth,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Vol. 20, No. 4, pp. 301–311.
- Müller, W.(1987). *Von der "Völkerverständigung" zum "interkulturellen Lernen"–Die Entwicklung des Internationalen Jugendaustausch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rnberg: Unidruck München.
- Ramlo, S. E.(2008). Determining the various perspectives and consensus within a classroom using Q methodology, In C. Henderson, M. Savella, & L. Hsu(Eds.) *Physics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pp. 179–182). Akron, OH :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 Sell, D. K. & Brown, S. R. (1984). Q methodology as a bridge betwee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application to the analysis of attitude change in foreign study program participants. In Vacca, J. L. & Johnson, H. A. (Eds.),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pp. 79–87). Kent, OH. : Kent University.
- Shinebourne, P.(2009). Using Q method in qualit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Vol. 8, No. 1, pp. 93–97.
- Stephenson, W.(1953).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phenson, W.(1975–1976). Newton's fifth rule: An exposition of Q pro re theologica pro re scientia. unpublished paper.
- Stephenson, W.(1982). Q–methodology, interbehavioral psychology, and quantum theory. *Psychological Record*, Vol. 32, No. 2, pp. 235–248.

부 록

부 록

부록 1. 심층면접 동의서 및 질문지

☐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

Q 1. 국제교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Q 2. 국제교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3. 주최기관(정부, 기업, 민간, 청소년단체, NGO 등)에 따라 느껴지는 이미지는 어떠하십니까?

☐ 국제교류 참여 동기

Q 1. 귀하는 어떠한 경로로 국제교류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Q 2. 귀하가 국제교류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Q 3. 특별히 국제교류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 국제교류 참여경험

Q 1. 귀하의 국제교류 참여경험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언제, 어떤 사업을 통해? 어떤 나라? 누구와 함께?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후활동 내용 등) -경험

Q 2. 귀하가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지도자, 참여비, 시설, 장소, 국가 등)을 말씀해 주세요.(전반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질문을 하위질문으로 추가하면 될 듯)-느낌과 평가

- 귀하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지도자에 대한 느낌은 어떠했나요?

- 다른 참여자들과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부터 끝나는 시점까지(사후모임) 참여한 참여자들은 어떠했나요?

- 국제교류 경험 중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사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후모임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국제교류 참여효과(핵심적 질문이므로 크게 개방적 질문을 던진 후 세부 질문을 추가하며 풍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Q 1. 국제교류 참여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효과 항목과 내용에 대한 견해를 개방적으로 묻는 질문임)
- 귀하 또는 귀하의 친구들이 국제교류 참여 전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Q 2. 국제교류 참여 전 귀하는 어떠한 사람(어떠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었나요?
- Q 3. 국제교류 참여 중 얻은 것이나 느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Q 4. 국제교류 참여 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수확)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기존 효과 항목 : 국제 역량강화, 글로벌 시티즌십,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 등 / 필요에 따라 각각의 상위 목표에 대한 변화내용들을 추가 질문해도 좋을 듯/ 단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 Q 5. 국제교류에 참여하면서 참여국에 대한 이미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Q 6. 국제교류에 다시 참여할 의향은 어떠한가요?
- 만약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왜 그런가요? (내재화된 효과를 묻는 질문임)
- Q 7. 국제교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주세요.
- ☐ 국제교류사업 평가
- Q 1. 국제교류활동을 간략히 평가 한다면 어떠한지요?
- 귀하가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한다면?
 - 국제교류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 Q 2. 국제교류활동 수행 중 특별히 좋았던 내용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 Q 3. 국제교류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언을 한다면?
- Q 4. 마지막으로 국제교류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세요.
- ☐ 기타
- Q 1.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생각들이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 Q 2. 이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심층면접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국제교류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성과)를 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국제교류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유형화함으로써 어떠한 성과들을 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하는 Q방법론에 사용하게 될 Q진술문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향후 국제교류 참여자의 인식 유형의 분포와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인식 유형에 따른 국제교류 사업의 정책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단, 인터뷰는 면접 참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인터뷰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참여자의 동의 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할 것입니다. 만약 인터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언제든지 원치 않으시면 인터뷰 내용을 연구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 다른 어떤 목적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연락처 및 이메일

박숙경 000-0000-0000,, 김소희 000-0000-0000, 오세정 000-0000-0000

이메일 (0904heeya@hanmail.net)

위의 모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었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일 시 : 2011년 월 일

면접참여자 : (서명)

면접자 : (서명)

부록 2. Q 모집단

1. 사전 교육의 기간(시간)이 너무 짧아서 상대국에 대한 이해나 팀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2. 사전 준비 과정 덕분에 팀원들과 단결도 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것 같다.
3.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지인에게 권유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편이다.
4. 팀원들과의 단체생활 속에서 갈등도 있었지만 낯선 환경과 의사소통 등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기회가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생긴 것 같다.
5. 상대국에 대해 내가 미리 조사했던 것과 실제로 현지 사람이나 환경 등을 직접 겪게 되면서 느낀 것들이 너무나도 달라서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
6.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 학생들에게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는데 프로그램도 체계성이 없고 다른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별다른 이득이 없어서 참여 자체를 후회한 편이다.
7. 바디랭기지로는 깊은 내용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학생들로 팀이 효과적인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교류 프로그램 기간이 너무 짧아서 서로를 이해하기는커녕 진정한 교류를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다.
9. 사전 교육이 너무 형식적이고, 기참여자들과의 현지 정보에 대한 교류가 너무 적거나 달라 현장에서 당황한 일이 많았다.
10. 사전 교육이 너무 짧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현지에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11. 현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채로 참여하게 되면 팀 내에 불화도 많이 일어나고 적응하는데 문제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12. 나보다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외국 친구들을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든 적이 많았다.
13.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문화적 차이를 몸소 깨닫게 되니까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14. 단순히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 것만 전해주기 보다는 상대국 친구들과 균등한 입장에서 서로 배울 것은 배우고 언어야지만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15. 같은 나라 친구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아 갈등이 있기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나랑 피부색, 언어, 문화권이 다른 친구들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아직은 어려운 일 같다.
16.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현지의 환경이 나랑 맞지도 않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진 것 같다.
17. 국제교류활동이 내 꿈 또는 진로의 방향을 바꾸게 한 계기가 되었다.
18. 다른 국가에 대한 호기심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것 같다.
19. 국제교류하면 상대국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다 주고 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보다는 내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데에 급급했던 것 같다.
20. 예전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강해서 제3국(후진국)의 사람들을 무시했었는데 국제 교류를 통해 우리보다 뛰어난 점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3국(후진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21. 상대국에 대해 평소 무시하고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보다 더 우수하고 본받을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22. 상대국에서 한국인이라고 좋은 대접을 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3. 입시나 취업을 위해 맹목적으로 공부에만 매달렸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공부만이 길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임을 깨닫게 된 것 같다.
24. 인생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전환점이 된 것 같다.
25. 방문 국가에서 현지인들이 한국의 기업 이름을 알고 있지만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월주의에 빠진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이 되었다.
26. 대중매체가 우리에게 미국적 사고를 주입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특정 문화권에 대한 고정관념에 휩싸였던 것 같다.
27.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상대국에 대해 낮게 보거나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 보다 우월한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28.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타문화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문화들을 접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29. 상대국의 기후나 식생활 등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현지에 가서 직접 체험해 보면서 낯선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다.
 30. 여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국제교류활동을 통해서 현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솔한 얘기도 나눠보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현지 생활의 깊숙한 부분까지 체험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좋은 것 같다.
 31.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첫인상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사람을 판단하기 일쑤였는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포용심이 생기는 것 같다.
 32.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마음만 있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가 생긴 것 같다.
 33.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상대국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해주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기 나뉠 것 같다.
 34. 타종교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는데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들에게 종교가 아닌 하나의 생활방식임을 깨닫게 되었다.
 35. 한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이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한국을 소개하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나도 모르게 애국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
 36. 한 나라에 다양한 자연 환경과 문화들이 공존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넓고 큰 곳임을 깨닫게 되었다.
 37.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 스스로 도전 의식을 자극받게 되었다.
 38. 국제교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되어 관심 있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39. 국제교류활동 참여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내 인맥을 형성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0. 국제교류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고의 폭이 넓혀져서 좋은 것 같다.
 41. 국제교류 참여 후 참여했던 학생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계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데 적극적이다.
 42. 국제교류활동을 통해서 간헐했던 나의 사고 체계가 열리는 것 같다.
 43. 자기 부담 비용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참여하는데 책임감이 생겨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 같다.
 44.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방문했던 국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남아서 그곳으로 유학을 가거나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하게 되었다(예정이다).
 45. 한국에서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좋은 줄 모르고 불평만 했었는데 제3국의 나라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내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46.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아 시간적 여유도 없고 사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내 자신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후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47.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했던 국가에 애정이 생겨서 그 국가와 관련된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노력하고 있다.
 48.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추억과 많은 외국인 친구를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49.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들을 겪게 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오픈 마인드가 된 것 같다.
 50.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지속적인 친분 유지를 위해 외국어를 스스로 학습하고 터득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
 51. 예전에는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다.
 52.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 같다.
 53. 예전에는 외국인이 말을 걸어오면 당황해서 피하고 했는데 요즘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편이다.
 54.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환경이나 생활수준만 다를 뿐 우리랑 똑같이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55.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느꼈다.
56. 참여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이라는 막강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리게 되고 방문 국가에서도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행동에도 조심하게 되는 것 같다.
57. 학교나 책을 통해 세계화에 대해 배우는 것은 누구나 다 같겠지만 막상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을 하면서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세계화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다.
58. 예전에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요즘은 신문이나 뉴스를 챙겨 보면서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갖으려고 노력한다.
59.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소중한 추억들이 나에게 값진 재산이 된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든다.
60.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동안 당연시하던 것들의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큰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61. 내가 누리던 행복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이 행복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62.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보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63.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사귀어 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 좋다.
64.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65.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스스로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했으며,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배려를 배우게 된 것 같다.
66.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받는 것에는 언어, 인종, 성별 등 아무런 제약도 없으며, 마음이 가는 데로 손을 내밀면 남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
67.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데에는 꼭 같은 언어를 쓸 필요도, 같은 배경환경을 가질 필요도, 같은 문화를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68.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접하면서 얻게 된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내 꿈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머리에 그릴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얻게 되었다.
69.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혼자서 담당해 내는 것보다 팀이라는 조직 안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그 효과는 열 배, 또는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70. 나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는 양보를 배우게 되었다.
71.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물이나 현상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복 추구의 방식을 배우게 된 것 같다.
72. 타문화권의 사람들 또는 환경을 직접 만나면서 미디어로만 접한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고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타문화에 대해 너무 미화하거나 또는 너무 깎아내린 선입견을 심어준 것 같아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73. 한국 제품들이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상이 그게 아닌 것을 직접 경험해 보니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자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었다.
74. 아직 한국에 대한 정보나 한국 제품이 많이 노출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고 개척하고 싶은 도전정신과 꿈이 생겼다.
75.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세계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 것 같다.
76. 미디어 또는 여행을 통해 접한 세상은 수박 겉핥기식이었었는데 국제 교류를 통해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생활을 하면서 죽은 유적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77. 타문화권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새삼 우리나라의 저력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되었다.
78. 타문화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알리며 우리의 것이 정말 위대하고 소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79.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 우월주위에만 국한되어 있던 사고와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

부록 3. Q 분포도

Q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국제교류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성과)를 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제교류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유형화함으로써 어떠한 성과들을 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하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제교류 참여자의 인식 유형의 분포와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인식 유형에 따른 국제교류사업의 정책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단, 본 Q 소팅 작업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만 이루어지며, 30~4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만약 Q 소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언제라도 원치 않으시면 본 내용을 연구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 조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 다른 어떤 목적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연락처 및 이메일

박숙경(000-0000-0000) 김소희(000-0000-0000), 오세정(000-0000-0000)

이메일 (0904heey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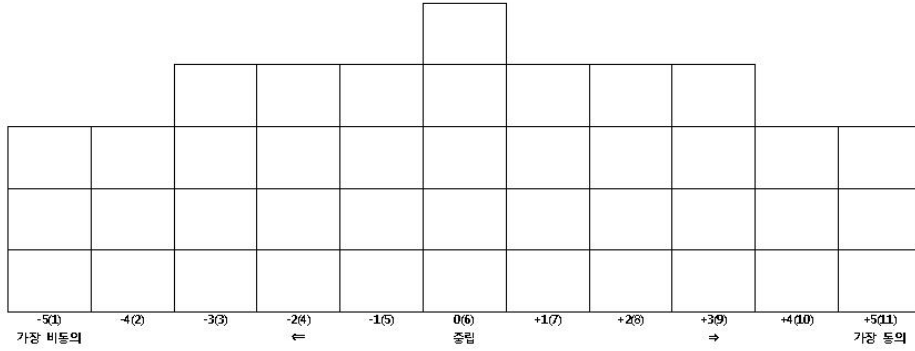
위의 모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었고 이해하였으며, 동의합니다.

일 시 : 2011년 월 일

Q소터 : (서명)

면접자 : (서명)

No. _____ 이름: _____ 성별: _____ 나이: _____ 학력: _____ (참가당시 학력: _____) 직업: _____ 지역: _____



번호	선택한 문항에 대해 가장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번호	선택한 문항에 대해 가장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 질문 사항입니다.

1. 본인이 참여한 국제교류활동을 기입해 주세요(최근 3개 이내).
예) 2010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해외테마체험(참여국: 인도, 참여역할: 팀장)
2. 국제교류활동의 참여 횟수?
3.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4. 국제교류활동 참여 전 사전교육에 참여하였습니까?
5.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후 사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6.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국제교류활동 이외에 기업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부록 4. 설문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국제교류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교류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어떠한 효과를 얻게되는지 알아보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국제교류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유형의 분포와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국제교류사업 개선을 위해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던킨 오리지날커피 & 도넛 기프트콘(W3,200)을 사례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책임연구원 : 박숙경(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전담교수)

psk328@khu.ac.kr 000-0000-0000

공동연구원 : 김소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육학박사)

ksh@kywa.or.kr 000-0000-0000

I. 다음은 국제교류 효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 항목중 귀하가 가장 동의하시는 내용 한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항 목	선택
1.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The Communication & Networking Opportunity)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유지하면서 내 자신의 관심사와 이상을 실현해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
2.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The Perspective-broaden about culture)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소중한 추억을 얻게 되었다.	☐
3.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The Sincere & New Experience)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 삶과 진로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또 다 른 삶이 가능하다는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

II. 다음은 2010년 귀하가 참여한 정부주도 국제교류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0년 귀하가 참여한 정부주도 국제교류활동은 무엇인가요?
 ① 국가 간청소년교류 ②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③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④ 청소년해외테마체험 ⑤ 청소년해외조사연수 ⑥ 청소년해외봉사활동
 ⑦ 국제회의행사참여단 ⑧ 국제청소년광장 ⑨ 아시아청소년캠프 ⑩ 기타
- 2010년 귀하가 참여한 정부주도 국제교류활동의 상대 국가는 어디였나요?
 ① 동북아시아 ② 동남아시아 ③ 서유럽 ④ 동유럽 ⑤ 북미
 ⑥ 중남미 ⑦ 중동 ⑧ 아프리카 ⑨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⑩ 다국적
- 2010년 귀하가 참여한 정부주도 국제교류활동 활동기간은 몇일이었나요? ()일
- 2010년 귀하가 참여한 국제교류활동 신청 계기는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요?
 ① 스스로 원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참여하였다.
 ②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참여하였다.
 ③ 친구 또는 주변 지인의 권유에 의해 참여하였다.
 ④ 학교 추천으로 참여하였다.
 ⑤ 기타
- 2010년 국제교류활동 참여 당시 귀하의 신분은 무엇이었나요?
 ① 초등학생 ② 중학생 ③ 고등학생 ④ 대학생 ⑤ 기타
- 2010년 국제교류활동 참여 당시 귀하가 거주한 지역은 어디였나요?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읍면지역 ⑤ 해외 등 기타
- 2010년 귀하가 참여한 정부주도 국제교류활동 비용 중 자부담 비율과 비용은 어떠했나요?
 전체 비용 ()중 부담액 약()원
- 2010년 참여한 정부주도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떠하나요?

홍보 및 모집 방법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참여자 선발 방법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사전교육 내용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사전교육 진행과정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프로그램 내용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프로그램 진행과정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지도자 역량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사후활동 지원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 2010년 참여한 정부주도 국제교류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우선순위로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홍보 및 모집 방법 ② 참여자 선발 방법 ③ 사전교육 내용 ④ 사전교육 진행과정
 ⑤ 프로그램 내용 ⑥ 프로그램 진행과정 ⑦ 지도자 역량 ⑧ 사후활동 지원

10. 2010년 참여한 정부주도 국제교류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간략히 제안해주세요.()

III. 다음은 이제까지의 귀하의 국제교류활동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이제까지 참여한 국제교류활동은 모두 몇 회인가요? ()회
2. 귀하가 이제까지 참여한 국제교류활동의 종류 중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① 국제회의·포럼 ② 친선문화교류 ③ 캠프 ④ 조사연구 ⑤ 봉사활동 ⑥ 기타
3. 귀하가 최초로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할 당시 신분은 무엇이었나요?
① 초등학교 ② 중학생 ③ 고등학생 ④ 대학생 ⑤ 기타
4. 귀하는 현재 국제교류활동 사후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① 참여한다 ② 참여하지 않는다
- 5-1. 귀하가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인생관 형성과 성찰 ② 인적 네트워크 형성 ③ 외국어 능력 향상
④ 타문화에 대한 이해 ⑤ 진로에 대한 인식 ⑥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 5-2. 귀하가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을 간략히 기술해주세요.
()

IV.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만()세
3. 귀하의 영어 사용 능력은 어떠한가요?
① 원어민 수준 ②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③ 일상회화만 가능 ④ 전혀 못함
4. 귀하의 해외체류 경험은 어떠한가요(6개월 이상)? ① 있다 ② 없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어 주세요.



던킨오리지널커피 & 도넛기프트콘(3,200)이 가입하신 번호로 전송됩니다. (HP.)

부록 5. 2010 정부주도 국제교류사업 개선 의견

1. 홍보에 대한 의견(30개)

요약 : 홍보 및 모집방법에 대해 모두 30명이 의견을 개진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소셜네트웍, 카페, 다양한 사이트 활용, 기참여자를 통한 교내 홍보, 포털, TV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많았다.

- 1)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앞서서 말했듯이 홍보 및 모집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이 참여할 때만 해도 평소 청소년 활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교류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당일날 팀장이 정해져 팀장과 팀원 모두가 힘들었다. 미리 정하면 좋겠다.
- 3) 학교에 공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홍보가 잘 되지 않는다.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기간을 알지 못하거나 기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4) 프로그램의 홍보와 모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다.
- 5) 공고를 일찍 하고 공고문에 정확한 일정과 목적을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외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인 참여자에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6)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 7) 아직 정부주도 국제교류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꿈을 키워나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7)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좀 더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 8) 참여하고자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고 언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뜨는지 살펴보게 되어 정보습득이 쉽지만, 혼자서 처음으로 그런 활동들을 찾아보려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방법이 다양화 되었으면 좋겠고 사후활동지원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9) 홍보를 좀 더 늘려서 더욱 많은 참여 유도하도록
- 10) 평소 우리가 쉽게 접하는 곳에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11) 폭넓은 홍보로 더 다양한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2)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사기관에서 주최하는 비슷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인지도가 높아서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린다. 홍보를 널리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 13) 대학생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어 있던 관계로 운 좋게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홍보가 된다면 우리나라 제1의 해외프로그램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와 각종 대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는 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훌륭한 대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4)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늘린다.
- 15)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정부의 지원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 16)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군요 그러니 홍보 및 모집 방법이 tv라든지 네이버 광고 등 조금 더 활발해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17) 우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면 아쉽게 기간이 지나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주로 지인들이 먼저 다녀온 사례를 보고 정보를 얻어서 다녀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좀 더 홍보가 잘 된다면 지인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홍보된 정보를 보고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지원자들 중 좀 더 나은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니다.
- 18) 적극적인 홍보와 탄탄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더 경쟁력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부터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더 적은 인원에 더 큰 혜택을 주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보고 싶은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
 - 19) 홍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학교 다닐 당시 자기가 의도적으로 열심히 찾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20)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홍보가 너무 미미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나무랄것 없는 프로그램인데 홍보가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 21) 정부주도 국제교류활동이라 그런지 홍보활동이 적극적이지 않고 다소 소극적 홍보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관심 있는 청소년들만 참여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국제교류활동에 참여신청자 및 참여자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2) 정부주도의 국제교류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사후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다방면으로 친해 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3)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 24) 주위에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홍보에 더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 25) 주위에서 정부주도 국제교류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주도 국제교류가 있음을 알고, 이에 지원하여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에 포스터를 발송하여 부착을 부탁하고,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사후관리를 통해 연락하여 매번 모집 시기마다 그 학생들이 홍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6) 지금도 충분히 잘 진행 되고 있지만 홍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여 더욱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7) 홍보가 너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8)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29) 홍보가 부족합니다. 아직 국가에서 이런 교류하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주셔서 알았지 평소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립니다.
 - 30)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적은 부분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몇몇 사기업의 프로그램들보다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 방문, 문화교류 형태의 프로그램보다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정을 프로그램 속에 넣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과도한 부담(양적으로나, 주제로서나)을 주기보다는 국제교류의 다양한 방법을 찾고 참여자들 스스로 실천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 선발 기준과 방법에 대한 의견(21개)

요약 : 선발기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 편차가 드러났다. 어학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지방 참여자를 좀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 또 오히려 서울 참여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중고등학생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방 참여자들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는 의견

- 1) 지방 거주 학생들의 참여가 사실상 많이 어려웠다. 특히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과 대책(지방차원에서 모임 및 준비, 사후지원 등)이 있으면 좋겠다.
- 2) 대도시보다 참여기회가 적은 중소도시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3) 더 많이 홍보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4) 면접을 보는 장소를 지역별로 나눠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일을 줄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5) 지방참여자자의 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수도권지역 참여자가 압도적인 것이 못내 아쉬웠다. 퍼센트로 쳤을 때 지방 참여자가 많아보일지 몰라도 지방 청소년의 수와 대비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 보였다. 광역권 이외에 일반 도시에서는 도시간 교류나 다양한 분야의 일반 자원봉사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다. 질 높고 다양한 도시 간 교류, 국가 간 교류의 기회가 많은 수도권지역 청소년 보다는 지방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활동 기회를 좀 더 부여해준다면 다양한 청소년 활동 경험이 많은 청소년이 참여했을 때에 비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 6) 지방거주자 교통비 부담이 크다. 교통비만 면접, 사전교육, 공항 이동 3번에 걸쳐 10만원 정도였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기회 확대

- 7) 사실 청소년을 위한 것이지만 대부분 대학생들이 주들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8) 청소년 교류는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위주로 선발하는 것도 고려

선발기회 균등 및 다양한 기회 확대

- 9) 기존 민간 교류 경험이 다양하게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10) 선발 인원의 다양성과 기회균등을 위해 기참여자 제한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그 역할과 향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참여자 참여의 기회 확대 제한 완화.
- 11)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을 뽑고 조를 좀 더 나누고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 12) 한번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시는 참여할 수가 없는데 이를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13) 참여자 선발 방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4) 학생대표로 2010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하고, 2011 참여자 면접관으로도 참여해보며 느낀 가장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열의를 가진 참여자들을 가려내 뽑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저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 10년도 프로그램을 잘 마쳤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만큼 일부인원들의 참여의식 부족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11년 참여자들은 애로사항이 더욱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아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등학생들이 참여의식이 부족해서 생긴 부분이었다는 듯 합니다.) 수많은 참여지원자들 중에 골라내는 과정이 어려운 길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사업인 만큼, 선발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15) 참여자 선발 방법에서 개별 면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체험활동에서 같이 가게 된 참여자 중에 나이가 어린 중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불건전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인들 속에서 체험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 그들이 자연스레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메이킹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도 못하는 참여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6) 개인적으로 다른 팀원들의 나태함으로 인해 교류동안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열정을 갖고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팀원들을 만났으면 하는 후회가 있어서 앞으로는 참여자 선발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17) 지방대생을 우대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던데 오히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 18) 참여자에 대한 이해 높은 사전교육 및 교류 시 태도와 자세에 대해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에서 참여자는 자국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하는데 경솔하고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임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참여자로서 창피했습니다.
- 19) 기본적인 어학실력(영어실력)등을 갖춘 참여자를 선발해야 한다.
- 20) 참여자들의 어학능력(영어 실력)등을 더 높게 반영하여 선발해야 한다. 참여자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 21) 또한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기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뽑는 방법이 기관마다 다르고, 요강도 달라서 이를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사전 교육 내용에 대한 의견(12개)

요약 : 사전 교육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특히 현지 사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 1) 파견되기 전, 사전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견되어 다른 나라를 배우고 오는 것 외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오는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교육 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국제교류활동이란 게 계획과 막상 현지에 가서 몸으로 부딪히면 다른 상황에 당황하기 마련인데 조금 더 사전교육이라든지 서포트가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 3) 팀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어 좋았지만 그 국가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4) 프로그램 목적과 취지가 드러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하고 그러한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목적과 취지가 잘 드러난 내용의 구성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준비를 학생들이 직접 짜는 걸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 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5) 사실 선발 후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떠났던 팀이라 준비기간에 뭘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팀원들과 나름의 계획을 짜고 준비했지만 막상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그 국가에 가서 받은 것이 더욱 많다고 느껴져서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국가방문 전 사전교육 내용과 사전교육진행과정 에 있어서 학생들 자율과 함께 담당부처에서 함께 양질의 아이디어를 팔 수 있는 시간을 스스럼없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후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 6) 체계적인 사전교육 및 기관 컨택에 대한 정보제공
- 7) 프로그램 참여 전 참여 의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 8) 아무래도 가기 전 교육내용을 더 개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더욱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 9) 정부주도 국제교류활동이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단기적 친선활동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사전교육을 통해 현지 에 나가 문화경험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10) 단장과 부단장 임명 시 단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11) 사전교육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동행하는 일행들과 친해질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할 듯하다

4. 사전교육 진행에 대한 의견 의견(14개)

- 1)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일정 및 정보에 대한 사전 안내가 미흡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현지 진행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표나 의견 교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 미리 구체적으로 안내가 된다면 보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출국하는 날까지 일정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아 처음하는 문화교류의 소중한 기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워낙 교류국이 많아 센터측도 힘들겠지만.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 3) 가기 전에 사전모임도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 4) 준비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물론 미리 알고 준비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기간의 안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큼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면 더욱 퀄리티 높은 보고서 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5) 사전교육 철저
- 6) 사전교육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 7) 사전교육이 활발하게 되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8) 사전교육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고,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아쉬웠습니다. 진정으

로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세계시민적인 생각을 갖게 해준 이런 소중한 프로그램의 기회가 적은 거 같아 이런 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기회 또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활동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9) 저는 작년에 한중청소년 특별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방문하는 곳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그곳을 방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100%였다면 50%도 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부족하니, 흥미도 갖기 어려웠습니다.
- 10) 사전에 정확한 프로그램을 공지하여 그 프로그램에 맞는 사전준비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하여 국제교류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1) 솔직히, 사후 모임과 사전 모임이 별로 생각이 안난다. 특색이 있거나 하기 보다는 그냥 공중에 뽕 뜬 느낌이다. 진행도 시간에 맞추어 딱딱 진행되지 못했고, 참여 인증서는 안 나온 사람이 태반에 오류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 아쉽다.
- 12) 실질적인 효율성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13) 사전 교육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배단원의 피드백이 더욱 긴밀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14) 현지 방문 전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면 준비가 더욱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진행 될 것 같습니다.

5.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14개)

요약 : 프로그램 실행 기간이 늘고, 현지인과의 접촉기회가 많아지길 희망하는 의견이 많다.

- 1) 교육 내용을 충실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2) 프로그램 내용의 질 향상
- 3) 국가 간청소년교류와 한중 특별교류 같은 경우 중복되는 지역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으로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다. 프로그램의 특징을 더 살려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4) 최대한 외국인들과의 친분을 갖는 시간의 비율이 늘어났으면 한다
- 5) 타문화 학생들과 여행하고, 좀 더 오랫동안 지낼 수 있었으면 더욱더 추억에 남는 프로그램이었을 것입니다.
- 6) 프로그램 홍보와 실제 활동 및 프로그램 내용 개선 필요
- 7) 프로그램과정을 통일화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8) 프로그램에 홈스테이 추가. 프로그램에 홈스테이를 넣는다면 훨씬 더 직접적인 교류가 될 것이다.
- 9)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느낀 것은 숙박결합기 식으로 프로그램자체는 겉으로 보였을 때 큰 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속빈 강정 같다고 느껴졌다. 특별 청소년 교류라는 취지였지만 대학생들이 문화와 교육 정치에 대해서 교류를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2~3번의 대학생들 간의 만남이 있었지만 대화의 주제 또한 미리 공지되지 않아서 양측 모두 대화의 준비는 되어있지 않았고, 통역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 중국어가 가능한 이들만이 대화에 참석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나중에 이 점을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
- 10) 학생들이 단순한 관광이나 탐방에 그치지 않고, 심도 깊은 연구와 조사를 하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훌륭한 조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더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충분히 독려해주시면서 중간과정을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후에 학생들이 보고서를 양식대로 작성하는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공문을 사전에 미리미리 클립이나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준비해온 자료로 최대한 올바른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외에는 학생들에게 국제교류를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11) 교류하는 외국인친구와의 교류활동시간을 대폭 늘렸으면 한다. 유적지 방문이나 활동하는 모든 것을 외국인친구와 함께 한다면 더욱 더 교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다.
- 12) 국가 간 청소년 교류의 경우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과감

히 배제하고 새롭고 파견되는 나라 특유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방재관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방재관에서 지진 체험이나 화재 체험 등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 13) 상대국 참여자들과의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14)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화 되었으면 합니다.

6.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의견(12개)

요약 : 통역지원 강화, 현지인과의 접촉을 늘릴 것, 체계적인 진행, 참여자의 의견반영과 고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필요

- 1) 참여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 2)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며 전문적인 통역자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역자가 부족합니다.
- 3) 언어장벽해소가 절실함. 상대국에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통역사들이 교류업무를 주도하는데 우리는 아마추어 대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실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4) 이러한 기회를 더욱 늘렸으면 좋겠어요
- 5) 일정이 빡빡했던 점, 교육테마로 갔는데도 방학중이라 200%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던 점.
- 6)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7) 중국과의 다양한 정보교류와 협력, 소양 함양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관련 부처(국가보훈처) 공무원을 매 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8) 진행사항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부로 가면서 압박을 주지 않으면 팀별로 느슨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9) 프로그램 중간에 일정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10)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
- 11)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 12)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른바 무임승차 인원에 대한 대응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간에는 이른바 하는 사람만 계속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사후활동 즉 보고서 역시 소수의 인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보고서가 필수라고 했는데 최종편집 및 완성을 저치는 한사람이 다했죠.

7. 인솔자, 지도자에 대한 의견(10개)

요약 : 10개 의견 중 인솔자, 지도자 개인에 대한 실망감을 피력한 의견이 다수고, 이를 위해 인솔자, 지도자를 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1) 학생들이 사전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받는 만큼 지도자(단장) 또한 교육을 받고 교류 프로그램을 인솔했으면 좋겠습니다.
- 2) 단장과 부단장 임명 시 단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3) 인솔하였던 인솔자들 또한 과연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인지 그냥 보여주기 식의 참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에게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자신들의 일처리하기에 바빴다. 자신들의 일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데 일처리 하는데 바쁘고 긴장했다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짜증내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날 만찬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다.) 어느 조 소속인지를 물어보면서 화내는 것은 무슨 태도였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 4) 단장님에 대한 역량평가가 조금 더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듯.
- 5) 지도자분들께서도 교육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있으신 분이 지도자로 나올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6)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집중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파견 전 지도자들의 충분한 리더십 교육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 7) 주최하는 기관이 프로그램 내용을 기획할 때 참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짜임새 있는 구성과 지도자의 역량이 조화를 이루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기획했으면 좋겠다.
- 8) 특히 5급 공무원 신분으로 오신 지도자역량에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서 오는 지에 대해서 의문이었습니다. 지도자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9) 내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에는 동행한 지도자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했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지하지 못한 분이셨다. 이로 인해 교류시 상대방 국가에 대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간혹 하셔서 단원들이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 했다. 따라서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될 국가에 대한 기본적 상식과 교육을 미리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8. 사후활동 지원에 대한 의견(33개)

요약 :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더불어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한 항목이다. 대부분 사후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의견들이다. 더 체계적으로 사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실질적인 구체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1) 본인 부담액이 큰 만큼 사후활동 지원의 폭이 넓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 사후 국제교류에 있어 지속적 연계를 맺을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 3) 교류 프로그램뿐 아니라 사후활동 또한 좀 더 여러 프로그램이 있으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류단원들 간 토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 일회성 시스템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였으면 좋겠다. 즉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 학생의 지속적인 교류~비록 다수의 학생에게 기회를 주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기존의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길 바란다.
- 5) 국내 참여자 간의 사후 활동 지원이 시급함
- 6) 지속적인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정부가 수행할 필요가 있음.
- 7)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참여자들끼리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더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여했던 해외조사연수단의 경우,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끼리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8) 사후활동에 있어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9)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 10) 활동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기회를 마련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 11) 매우 뜻 깊은 경험을 하였습니다만 사전교육과 사후활동의 내용이 더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 12) 사후 같이 갔던 학생들과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3) 사후 피드백이나 참여 청소년 간의 교류를 위한 사후 워크숍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번만 열리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 14) 사후 활동 및 참여자들 간 네트워크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5) 사후 활동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다른 국제교류활동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16) 사후에 모여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17) 사후활동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 18) 사후활동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9) 사후활동 지원이 전무 합니다. 멘토 멘티 제도를 도입하여 다음 기수들의 청소년 국제활동 프로그램에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20) 사후활동 지원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2010년 참여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류활동이 더 효과적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때 당시만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소중한 세금으로 교류를 한 학생들의 경험과 생각들을 다른 청소년들에게 전파시키고 또한 청소년 뿐 아니라 그들을 키워내는 어른들에게까지 전파시켜 이 국제교류활동이 정말 의미 있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발성, 일회성 활동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그 나라 학생들이 왔을 때 의무적으로 일주일 이상 참여하게 하는 등 어떠한 강제적 의무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1) 사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케어가 별로 없어서 국제교류활동 후 받은 영향을 더 확대시키기 힘든 것 같아요. 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교육 내용과 실제 가서 겪은 것과 많이 달라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니다. 기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참여자들을 위한 안내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22) 사후활동에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10일간의 교류로 끝났습니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였지만 대학생 위주의 구성으로 고등학생은 극소수만이 참여했습니다. 좀 더 모두가 어울릴만한 프로그램으로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 23) 사후활동지원을 더하고 홍보를 다양하게해서 참여후보자의 수를 늘려야합니다.
- 24) 사후활동지원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부족하여 사후에 만남을 갖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4)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해외 탐방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딱 끝인 것 같아요. 그 이후의 활동에 좀 더 개선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25) 사후워크숍을 할 때 레크리에이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필요한 활동(우수팀 발표 등)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 26) 적극적인 사후관리
- 27) 한국으로 오는 친구들에 대한 정보가 미약한 것 같다. 파견을 다녀온 친구들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 같다.
- 28) 조사내용을 발표할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 29) 사후 관리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끝나치고 나서 아무런 사후 관리가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30)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결 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나는 한일교류프로그램이면서 문화탐방이었는데, 그 후에 팀별로 만남이 조금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교류나 세미나 등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 31) 사후 모임이라든지 사전 오리엔테이션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문화 컨텐츠 발표를 위한 조별모임 등에 있어 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 32) 한 번의 교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활동 지원 및 참여자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좀 더 효과성을 높임
- 33) 프로그램 참여 이후 SNS등을 통해 사후 교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9. 비용지원에 대한 의견(17개)

요약 : 비용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더 불어 비용 정산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 1) 지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 계획 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 2) 금전적 지원이 좀 더 필요합니다.
- 3) 넉넉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4) 본인이 참여한 교류 프로그램에 한하여, 체류비 지급이 절실합니다.
- 5)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 및 이해를 위한 자료 등 사전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기타 준비를 위하여 자부

- 담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큰 듯하다. 정부에서 지금 자금적 지원이 있지만 더 커졌으면 좋겠다.
- 6) 사기업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운데서 정부 특유의 혜택이 전무하다. 거기에 홍보까지 잘 안 되서 그런지 경쟁률이 해년마다 높아져 가고 있지만, 사기업에 비해 많이 모자란 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기 지원자들을 적극 이용하여 대학내일 같은 잡지에 투고 하는 등의 방안과 정부 측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7) 또 항공료 이외에 연구비 지원 등 인원을 줄이더라도 더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8) 저희 청소년을 위해 항상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수주 받은 단체들의 교육과정과 현장의 준비된 상황과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나기 전 진행시 물건구입비로 조별로 30,000원 받았습니니다. 현장에 가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물건을 지원하겠다고 하고선 팀별 책정된 여비가 30,000원 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봉사를 수행하면서 너무나 황당한 일이 있어 한국에 돌아와서 개선했던 점을 이야기 하였으나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해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녀간의 문란한 성문제, 고등학생이 참여하였는데 진행자들의 술파티). 봉사현장에서 분실된 개인소지물에 대해 얘기하였으나 개인적 실수라고 하면서 보험회사에 직접 알아보라 하고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여성가족부와 단체가 일정비율로 부담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단체에서 지원한 물품에 대한 설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활동비를 수령 했을 때 청구한 내용과 막상 현장에 지원한 내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 개인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혜택을 받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정부나 민간기업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9) 저는 청소년해외조사연수를 다녀왔는데 뽑는 시기가 성수기 때에 맞물려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선출시기를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10) 프로그램외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 우리가 교류를 하러 나가기 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의 교류전 준비 과정에서 다같이 모일수 있는 장소나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공연 등도 하였는데 이러한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준비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11) 정부 부담액을 조금만 높여주었으며 한다. 솔직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조금 부담이었다.
 - 12) 정부주도 프로그램이라 프로그램의 신뢰도나 탐방 내용 등은 체계적이라고 생각은 하나, 너무 저비용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참여자 개인부담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 13) 참여자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14) 참여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한다면 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될 듯합니다.
 - 15) 항공편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
 - 16) 지방거주자 교통비 부담이 크다. 교통비만 면접, 사전교육, 공항 이동 3번에 걸쳐 10만원 정도였다.
 - 17)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생각보다 지원금이 많이 안 나와서 돈을 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10. 기타 : 전반적인 만족 의견 등(6개)

- 1) 너무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2)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석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니다. 프로그램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 3)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 청소년들에게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해외 테마 체험단을 통해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너무 좋은사람들을 만나 지금까지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 4) 전반적으로 훌륭했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 좋았다.
- 5) 중국에서 열렸던 2010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은 매우 뜻 깊고 유익한 행사였습니다. 그 정도만 유지된다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행사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6) 현재에 만족합니다.

Abstract

The perceptions on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articipation effects

This study explored participation effects for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articipants by using the Q methodology to derive perception factors. Q Methodology was used to examine human subjectivity to find out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In addition to the Q Methodological study we sought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und perception factors and other variables. To do this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1,612 youth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The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by 226 respondents. The following are principal analytical results and implications in this study.

First,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 on perception for the participation effects of international exchange showed that participants recognize common positive effects in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provided by adaptability experience in a strange place and by courage cultivation. The characteristics included having an interest in various cultures and the experience involved an expansion of understanding, broaden and deepen their understanding on other cultures.

The perceptions on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articipation effects are shown by three factors, 'The Opportunity for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The Mind-opening Perspectives on Culture', 'The Serious Reflection upon Their Own Life'.

Factor 1, 'The Opportunity for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recognizes that

it could develop individual interests and it acted as a bridge for networking and afforded them with an opportunity for new communication through the activities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exchange.

Factor 2, 'The Mind-opening Perspectives on Culture' shows that the international exchange has enhanced the acceptability and understanding about the other cultures.

Factor 3 shows that they have come to realize the values of time taken for self-examination and new career opportunities that are provided by experiencing diverse lifestyles.

In the second step, we searched general distribution by factors and relation between perception factors and other variables. The result, Factor 2, 'The Mind-opening Perspectives on Culture' was the highest rate (54.4%), showed in order of Factor 1, 'The Opportunity for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25.7%), and Factor 3, 'The Serious Reflection upon Their Own Life' (19.9%).

The following is a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the form each factor; Factor 1 type participants can be a communicative with foreigners, and have experienced staying overseas. Factor 2, type participants are those who has an interest in new experiences, was relatively more likely to participate the international exchange. Factor 3, 'The Serious Reflection upon Their Own Life' type participants was comprised of people who have taken part in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since childhood.

In the third step satisfaction on the orientation process, support post-activity was shown to be statically significant in the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effects by program type. Therefore, it has been confirmed there needs to be commonly active orientation and post-activity through development of a manual. Post activity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articipants suggested that to improve support, post-activities, program contents, and publicity and recruitment all need

improvements.

The following are proposals of this study to find ways to improve international exchang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irst, proposal is for a follow-up study that it can be used as an objective basis for policy procedures, by building the base of empirical data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effects of international ex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nts.

The second, proposal is for diversity of programs based on perception factors and for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support to assure commitment in order to maintain the positive effects of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that are both in-depth and ongoing.

Finally, there needs to be mor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an institutional framework, supported by manpower to secure the operation for improved participation effects to occur from of th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rogram.

We suggest these development strategies be developed through approaches that include the mixed research designs that are then developed based on results of the research and in consultation with experts in the area.

Key Words : participation effects for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erception factors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 · 김소희 · 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 · 임영식 · 이인재 · 박균열 · 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 · 홍성훈 · 서규선 · 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 · 김남준 · 김항인 · 류숙희 · 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 · 변순용 · 김국현 · 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 · 김남준 · 김항인 · 류숙희 · 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김희진 · 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 · 정해숙 · 마경희 · 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 · 박건 · 권영인 · 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 모상현 · 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김지은 · 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 ·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 · 김영문 · 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 · 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 · 김희진
- 11-R15 한 · 중 · 일 · 미 교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 · 임희진 · 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 · 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탁과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임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무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 · 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 · 중 · 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 · 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진 ◆

염진수 (국제워크캠프·소장)

송민경 (경기대학교·교수)

김용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부장)

연구보고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인쇄 2011년 12월 21일

발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재연

등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72-1(93330)

978-89-7816-970-7(세트)